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아야, 서두르지 마라

孩子你慢慢来 (孩子你慢慢來)- 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安 英 實

2014年 2月

애야, 서두르지 마라

孩子你慢慢来 (孩子你慢慢來)-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安 英 實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2 月

安英實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 年 2 月

차 례

【머리말】

리본 묶기.....	3
세상과의 조우.....	7
용.....	13
저건 뭐야?.....	17
드디어 왕자와 결혼하다.....	22
야심.....	27
할머니.....	35
산모에게 보내는 글.....	40
그의 이름은 "사람".....	44
서양아이다!.....	50
어린이집 찾기.....	55
신화·미신·신앙.....	60

사나이 대장부.....64

점점 멀어지다.....69

《수호지》를 읽는 꼬마.....75

쥐 한 마리.....80

형과 남동생.....85

【발췌】

나는 이렇게 자랐다.....95

내려놓기.....100

리본 묶기

“할머니, 이 꽃 주세요!”

검정 난방에 검정바지를 입은 할머니는 내가 주문한 빨간색 장미 스물 몇 송이를 바구니에서 꺼내 어린 손주에게 주고는 거스름돈을 가지러 갔다.

꼬맹이는 다섯 살 정도에 눈동자가 맑았다. 밧그스름한 볼에 방긋 웃을 때 몇 개 자라지 않은 이빨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받아 꽃 묶을 끈을 꺼내 들었다. 꽃 가지가 엄청 많았다. 꼬맹이는 손이 엄청 작았지만 리본모양으로 묶을 생각이었다. 손가락을 바빠 돌리고 있었지만 리본모양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야, 꾸물대지 말고 빨랑 해. 손님이 기다리잖아!” 할머니는 큰소리로 호통치며 아이를 밀치기까지 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하게 내버려주세요.”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돌계단에 앉아 다섯 살짜리 남자애가 열심히 리본을 묶고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리본끈이 얼기설기 교차되었다. 마지막에 당겨 꼭 조이려는 순간 또 다시 풀렸다. 아이는 또 다시 묶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끈을 잡고 있었다.

햇살이 단수이(淡水)거리 좁은 골목 안 너저분한 꽃 가게에 비쳤다.

이슬람교도와 유태인들이 서로에게 칼날을 견주고 있는 이 시각, 에티오피아의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굶주림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각, 뉴욕 월가 증권시장이 긴장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이 시각에 — 나는 늦은 오후 햇살아래 계단에 앉아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다. 다섯 살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천천히 리본을 묶는 것을 기다려주고 싶었다.

“왕아이리엔, 보충수업비는?”

임선생님의 눈빛이 차가웠다. 왕아이리엔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는 작지만 언제나 가장 뒷자리에 앉았다. 육십 여명의 학생들이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나무의자에 앉아있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학생은 없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왕아이리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텅수룩하고 덩어리 진 머리는 전혀 씻지 않는 것 같았고 늘 더럽고 헤진 교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털옷을 꺼입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얇은 교복차림이었다. 겨울이 되면 그녀의 입술은 늘 파랗고 연필을 잡은 손에는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보충수업비도 없으면서 학교에 나와?"

임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을 뿐이다.

"나와!"

왕아이리엔은 코를 훌쩍이고 다리를 떨며 제일 앞줄로 나왔다. 마침 내 앞에 와 섰다. 그녀는 양말도 신지 않았다. 맨발에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날 나는 털양말을 두 개나 겹쳐 신고 있었다.

"저기 세 번째 문제 풀어봐!"

임선생님은 손에 든 기다란 등나무회초리로 글씨가 빼곡한 칠판을 가리켰다.

왕아이리엔은 분필을 꺼냈지만 이내 떨어뜨렸다. 분필이 바닥에 떨어져 '톡'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분필을 꺼내들고 겨우 몇 글자 썼다.

"이리 와!"

선생님은 회초리를 만지작거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곧 일어나게 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등나무회초리가 그녀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왕아이리엔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움츠린 채 피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등나무회초리가 공중에서 "획-획-"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들렸다.

피가 그녀의 영킨 머리를 타고 얼굴까지 흘러내렸다. 손가락과 더러운 황토색 교복에도 피가 묻었다. 왕아이리엔이 일년 내내 두창을 앓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새빨간 피가 왕아이리엔 손등의 검푸른 힘줄위에 자국을 남겼다. 머리에 묻은 피가 금새 굳어버려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엉켰다.

이튿날 비가 내렸다. 나는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엄마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나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온갖 색상의 포스터를 구경했다.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다 "링센"이라는 배우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철도부근에서 석탄을 운반

하는 화물차를 보고 레일 위를 걸으며 놀았다.

왕아이리엔의 피를 보고 겁먹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매일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옆 교실에서 선생님이 "교육감이 떴다"라고 소리 치면 우리는 재빨리 참고서를 다리 밑에 넣어두고 교복 치마로 감춰야했다. 그리고 임선생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자, 오늘은 음악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교감이 가고나면 우리는 다시 치마 밑에서 두꺼운 참고서를 꺼내 수학문제를 풀어야했다.

아니면 짱샤오윈이 숙제를 내지 않아 선생님이 남자학생들이 앉아 있는 줄에 세워놓고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치마를 위로 들고 있게 했다. 그것도 아니면 리밍화가 수업시간에 창밖을 쳐다본 탓에 교실 제일 뒤에서 두 다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두 손은 물이 가득 찬 대야를 든 채로 삼십분 동안 벌을 섰다. 혹은 장병황이 "가"를 받아 선생님이 '나는 게으름뱅이'라고 적은 목판을 목에 걸고 휴식시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했다.

나는 매일 책가방을 메고 엄마에게 다녀온다고 인사를 한 뒤 거리에서, 비속에서 한 달 동안 방황하며 뒷골목에 있는 술집 이름을 다 기억했다. 멩하우, 검은 고양이, 풍류과부, OK.....

내가 오빠에게 잡혀가 엄마한테 한바탕 맞은 후 임선생님 앞에 끌려갔을 때엔 머리에 두창이 난 왕아이리엔은 사라진지 이미 몇 주가 되었다. 나는 돌아갔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왕아이리엔은 동생 셋을 데리고 아이허강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아이허강의 물이 더럽다고 했다.

그해 우리는 열한 살이었다.

단수이의 거리에서, 햇살이 작은 골목 안 너저분한 꽃 가게를 비추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사선생님은 피범벅인 태줄을 자르고 있었다. 폭죽 연기 속에서 젊은 남녀가 일생일대의 영원한 기약을 하고 있었다. 뒷산 숲속에서는 묘지에 자란 잡초들이 비에 축축해진 땅을 뚫고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나는 석양이 비추는 돌계단 위에 앉아 눈동자가 티 없이 맑은 어린 남자애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평생이라

도 이렇게 기다려 줄 수 있었다. 다섯 살내기 고사리 손으로 리본을 묶는 것
을.....

애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1985년 3월 27일 연합칼럼에 실음

세상과의 조우

‘빠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작년 8월, 화안(華安)네 일가 세 식구는 유럽의 한 작은 항구도시로 여행을 떠났다. 당시 화안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다. 육아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8개월 되는 화안은 기어 다니고 침대를 잡고 일어설 수 있으며, 벽을 짚고 걸을 수 있다. 구강 욕구가 강해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 맛보아야 직성이 풀린다. 말은 못하나 웅알이로 엄마 아빠는 부른다.’ 앞서 일가 세 식구라 했는데 물론 화안과 엄마, 그리고 아빠를 말한다.

바다 물은 맑았다. 정체를 새들이 무리를 지어 바다 위를 날며 관광객들이 빵을 던져주기를 기다렸다. 새들의 입은 나뭇가지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만큼이나 무척 컸다. 주둥이 밑에는 큰 주머니가 붙어있어 참 신기했다. 새가 주둥이를 벌리자 관광객들이 던져준 사과며 빵이며 작은 물고기며 모두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주머니가 묵직해졌다.

화안은 바닷가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신기한 표정으로 이 거대한 새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는 독일어로 “Das ist der Pelikan.” 라고 했다.

엄마는 한참 생각한 뒤에야 결심이라도 내린 듯 “이것은 펠리컨이란다” 라고 말했다.

화안의 손에는 껌질을 깎은 사과가 쥐여있었는데 테구루루 굴러 떨어져 풍덩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이어 펠리컨의 꺾 하는 소리와 함께 주둥이 밑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아빠는 화안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리고 물속의 동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안아, 새네들은 Bird, Bird, Bird, Bird.....란다.” 라고 했다.

화안은 반응이 없었다. 화안은 아빠 옷소매 단추를 당기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9월, 화안과 엄마, 아빠는 미국에 도착했다. 산속 자그마한 통나무 집 한 채를 빌렸다. 집 주위에는 싱그러운 풀들이 가득했고 온통 울퉁불퉁한 껍질로 뒤덮인 개구리가 자주 계단에 올라왔다가 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집안으로 들어오곤 했다.

햇빛이 유난히 맑은 어느 날 아침, 높디높은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이 반짝거렸다. 아빠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엄마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화안은 조금 전에 엄마의 칫솔을 나무 줄기 틈새에 집어넣더니 지금은 또 아빠의 신발 속에 진흙을 채워 넣느라 여념이 없었다.

“빠—”, 엄마는 무언가 가녀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빠—” 또 다시 소리가 들렸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다. 화안의 웅얼이 소리였다.

“빠, 엄마, 빠!” 화안은 다급해진 듯 계속해서 웅얼거렸다.

“우리 아가, 왜? 아이고, 아빠 신발 네가 다 더럽혔구나!”

“빠, 엄마, 빠, 빠, 빠! 엄마, 빠!” 화안은 엄마 곁으로 기어와 치맛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토실토실한 손으로 풀이 수북한 곳을 가리켰다.

엄마는 화안이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수북한 풀 사이로 수탉 한 마리가 푹푹이 서있었다. 새빨간 빛과 금록색 꼬리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수탉은 동그란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자기와 키가 비슷해 보이는 화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빠!” 화안은 조금은 흥분되고 무서워하는 기색이었지만 손가락을 구부정히 펴고 수탉을 가리켰다.

엄마는 잠시 의아해 하더니 뭔가 생각난 듯 했다. 맞아, 깃털에 가느다란 두 다리, 날카로운 주둥이, ‘빠’가 ‘Bird’ 였구나. 그런거야.

엄마는 화안을 와락 끌어안고 미친 듯이 뽀뽀를 해대며 교양 없는 아낙네처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화안이 말을 해요, 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화안은 몹시 귀찮은 듯 엄마의 얼굴을 힘껏 밀어냈다. 그리고 애써 몸을 틀어

목을 길게 빼들었다. 풀 사이에 곳곳이 서있는 녀석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세상과의 조우

‘빠’를 알게 된 후로 화안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성당의 종소리가 여덟, 아홉 번 울리면 화안은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와 1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으로 갔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면 엄마는 노란색 자전거를 꺼냈다. 뒤에는 화안의 노란색 전용의자가 준비 되어 있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바빴다. 엄마는 가이드가 되어 화안에게 세상을 소개해야 했다. 화안이 이 세상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빠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안은 끄집어내 일깨워 줘야만 만족했다.

1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평범한 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네! 자, 봐봐, 하늘에는 밝은 햇님에, 뭉게뭉게 양떼구름, 때로는 잿빛 구름이지만 언제나 그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었다. 제트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남긴 하얀 줄이 멀리서도 보였다. 흰줄 양쪽으로 하늘이 나뉘어져 보였다. 초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다. 보송보송한 하얀 벼들개지들이 저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하늘을 날고 흙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화안의 머리위에도 내려앉았다.....

길에도 볼 것이 많았다! 이 집 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저 집 담벽에는 포도넝쿨이 매달려 있었다. 지팡이 할머니는 새로 갈아 일군 화단에 도자기로 만든 토끼, 하얀 오리 두 마리, 우산 크기의 왕버섯 하나, 그 밑에는 파란색으로 된 못생긴 개구리 한 마리를 놓아두었다.

도로위에 움직이는 물건들은 일일이 말하자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달리기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는 녀석은 자동차였다. 트럭,짚차,버스,오토바이,자전거,기차,전차,청소차,유모차.....정말 끝없이 많았다. 맞은편에 뒤뚱뒤뚱 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검은 털 녀석은 "멍멍이"였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길 맞은 편 창턱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야옹이, 길목 커브 바깥 쪽 산

비탈에는 고개를 숙인 채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얼룩송아지가 보였다. 목에는 워낙이 달려있었다.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들려왔다.....

엄마는 차전거를 미느라, 화안은 구경하느라 바빴다. 두 사람의 대화도 끊임 줄 몰랐다.

"화안아, 들리니? 성당 종소리야....."

엄마는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종소리, 덩~~~~이~~잉~~~ 덩~~~~이~~잉~~~!"

화안은 즐거운 표정으로 성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당은 저기 산 쪽에 있었다.

"꽃,꽃~"

화안은 고사리 손으로 꽃밭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빨강!"

엄마는 고개를 숙여 꽃들을 보았다. 꽃잎에는 수정 같은 이슬이 빛나고 있었다.

"빨강이 아니야, 화안아, 이 꽃은 노란색이야."

화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킁킁거리며 말했다.

"너랑거, 너랑거!"

75번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아 모습을 보였다.

"버스, 엄마, 버스 왔어. 큰 거!"

"화안아, 무슨 색이지?"

화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너란땡!"이라고 했다.

"뭐라는 거야!"

엄마는 들에서 딴 꽃으로 화안의 머리를 치며 "파란색이야, 하늘과 같은 색, 잘 봐봐!"했다. 화안은 고개를 들더니 큰 소리로 "Bird!"하고 외쳤다.

갈매기 한 마리가 연푸른 하늘을 날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우체부아저씨와 인사를 하고 커브를 돌아 바로 사과 과수원이 보였다. 송아지 몇 마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즐고 있었다.

"사과, 멍멍이, 소, 나무"

화안은 하나도 놓지 지 않고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풀, 방울, 집, 굴뚝, 자전거....."

언덕에 올라가자, 다시 "사슴, 게거리, 할아버지....."

'게거리'는 '개구리', '할아버지'는 도자기로 만든 긴 수염 요정이었다.

가고 또 가고, 드디어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엄마는 화안을 살포시 안아 자전거에서 내려놓으며 볼에 뽀뽀를 했다.

"우리 꼬맹이, 잘 있어, 친구들이랑 잘 놀아, 착하지."

화안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자전거를 움직이려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 오른 듯 엄마 등에 대고 큰소리로 외쳤다.

"엄마, 착하지."

저녁 무렵

가을 날 저녁 무렵, 금빛 낙엽이 바닥 전체에 두껍게 뒤덮여 있어 너무나 아름다웠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싸늘한 하늘이 보였다. 열기설기 엉켜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무지개빛이 비쳤다. 강물이 줄줄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맑은 강물 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는 화안을 태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를 가로 지나 넓고 얼룩얼룩한 나무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웬지 모르는 처량함을 느껴 고개를 돌려 화안에게 말했다.

"샤오차오(小橋, 작은 다리)-"

"샤오차오(小橋)-" 화안은 짹짹한 목소리로 따라했다.

"류수이(流水, 흐르는 물)-"

"유수이(游水)-"(화안이 잘못 발음 했음)

"런지아(人家, 인가 몇 채)-"

"야야(鴨鴨)-"

"구다오(古道, 쓸쓸한 거리에)-"

"우다오(五道)-"

"씨평(西風,가을 바람이 불어)-"

"미평(蜜蜂)-"

"스오우마(瘦馬, 야윈 말)-"

"멍멍이야, 엄마 봐봐, 멍멍이-"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강을 따라 점점 멀어져갔다. 점점 짙어져가는 땅거미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용

세상을 알게 된 화안은 두 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고집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름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네발이 달리고 전신에 털이 나있으며 걸어 다니는 녀석은 "멍멍이", 마찬가지로 네발이 달려있고 전신에 털이 나있으며 걸어 다니는 녀석이지만 귀와 코가 유난히 뽀족하면 그 녀석은 "여우"였다. 몸집이 비교적 작고 "야옹,야옹" 울면 "고양이"였다.

화안의 질문은 가끔 엄마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화안은 오동통한 손가락으로 책속의 그림을 가리켰다.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건?"

엄마는 얼굴을 책 가까이 가져가 보고 또 보았다.

"모르겠는데! 세상에, 어쩜 이런 녀석도 있다니!"

화안은 눈에 힘을 주며 손가락은 여전히 그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안은 한톤 높아진 목소리로 조금 전 보던 빠른 속도로 말했다.

"엄마, 이거-어?"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녀석은 호랑이 머리에, 몸통은 반달가슴곰, 거기에 표범의 발까지 하고 있었다. 한성출판사에서 내놓은 소백과(小百科-아동용 백과책)는 여러 가지 삽화를 이용해 동물의 진화과정을 설명했다. 두 살내기가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림이 많다보니 화안은 하루에도 몇 번 씩 펼쳐 보곤 했다. 소백과는 화안을 위한 그림책이 되어버렸다. 너무 커 세워 놓으면 화안의 허리까지 오는 높이였다. 잘 만든 덕에 커버도 유난히 묵직했다. 화안은 매일 젓 먹던 힘까지 다해 안방에서 거실까지 책을 들고 나오곤 씩씩 거렸다. 그리곤 책을 바닥에 펼쳐 놓고 그 위에 엎드려 책을 보았다.

"좋아,"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요 녀석은 괴물이라고 해."라고 했다.

"게물! "

화안은 조심스럽게 따라 말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모서리의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 이거는?"

이번에는 돼지 머리에 코끼리 몸체를 한 녀석이었다. 엄마는 서두르는 척 일어서며 말했다.

"괴물, 얘기가, 다 괴물이야. 와서 따뜻한 우유 마시는 거 어때? 코코아도 넣어 줄까?"

가끔 엄마는 화안에게 세상을 알려주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우여곡절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삼개월전, 엄마는 화안을 데리고 타이베이에 있는 용산사에 간 적이 있다. 사원의 기둥에 입을 짝 벌리고 손톱 발톱을 날카롭게 치켜 들고 있는 용 한 마리가 기둥에 긴 몸을 칭칭 감은 채 붙어있었다. 용의 눈은 튀어나와 있었다. 화안은 놀랍고도 신난 표정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어 용의 푸른색 눈동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뭐야?"

엄마는 쪼그리고 앉아 화안의 손을 잡고는 용을 만지게 했다. 그리고는 한 음절씩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용이야, 얘기가, 용, 말해봐, 용~"

화안은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말했다.

"용."

사원 안 은은한 향내가 엄마의 후각을 자극했다. 엄마는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다.

"용"이란 이름을 알려주는 외에도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엄마는 생각나지 않았다. 화안에게 "용"이란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명명이"나 "여우"를 알려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엄마는 자기도 몰랐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용을 쳐다보고 있던 화안이 갑자기 말했다.

"용이 엄청 크네!"

유럽에 돌아왔다. 여기에서는 용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전차를 타고

가는데 화안이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다.

"용, 용, 엄마 봐봐-"

마침 전차가 멈췄다. 엄마는 급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쓸쓸한 거리가 보였다.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집들과 우중충한 하늘, 밝은 색이란 찾아 볼 수 없는 행인들의 코트가 보였다. 유일한 칼라색채가 눈에 들어왔다. 100미터정도 되는 채색 띠가 높게 자란 가로수에 장식되어 있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장식들이었다. 엄마는 문득 깨달았다. 어린 화안의 눈에는 길쭉한 것들은 모두 '용'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아니야," 엄마는 말했다.

"저건 오색 비단끈이란다. 용이 아니야."

갑자기 가을바람이 불더니 붉은색 비단 띠가 파도라도 탄 듯 팔락거렸다. 비단 띠는 춤추고 있었다. 엄마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마치 중국에서 춘절 때 폭죽 속에서 춤추는 금색 용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저것을 보고도 어찌 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주방에서 바빠 보냈다. 화안에게 생선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푹푹해진대."

엄마는 옛날 어른들한테서 전해들은 말을 중얼거리며 생각을 채 썰고 있었다.

"쿵, 쿵, 쿵" 화안도 자기 "주방"으로 뛰어갔다. 방에 들어서자 화안은 자기 물건들을 살살이 훑어봤다. 털이 포시시한 토끼, 거북이, 멍멍이, 수탉, 반달가슴곰.....그리고 말할 줄 아는 새, 울 줄 아는 검은 인형, 연주가 가능한 팽이도 있었다. 탈 수 있는 세발자전거, 아빠가 한 살 때 가지고 놀던 목마, 나팔을 실은 트럭.....그 외에도 장난감 차들이 한가득 했다.

"우루룩"소리가 났다. 주방에서 죽 만들고 있던 엄마는 화안이 장난감을 다 골랐음을 알 수 있었다. 화안은 바구니 속 차들을 모두 바닥에 비우고 있었다.

엄마는 당근을 썰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물론 엄마는 귀를 쫑긋하고 화안한테서 신경을 떼지 않았다. 사실 엄마는 당근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안에게 당근을 먹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했다.

"당근은 눈에 좋지." 엄마는 생각했다. 문득 엄마는 자신이 "꽤꽤꽤꽤 꽤 꽤, 엄

마오리와 새끼오리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채 썰던 손을 멈췄다.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참,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그리움의 피눈물이 마르지 않네, 봄날의 버드나무와 꽃이 끝없이 피고 있네" 이런 노래만 흥얼거렸었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리 동동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엄마, 봐봐!"

화안이 들뜬 목소리로 뛰어왔다. 화안은 젖은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여기 와!" 라고 했다.

엄마는 한쪽 손에 칼을 든 채 화안을 따라 방으로 갔다. 카펫 위에는 화안의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었다. 트럭, 짐차, 버스, 오토바이, 관광버스, 트레일러.....각 종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빈틈없이 나열 되어 비뿔비뿔하고 긴 곡선을 만들었다. 차들이 구석에서부터 침대 머리맡까지 이어져있었다.

"엄마" 화안은 차들을 가리키며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용이야!"

엄마는 허리를 굽혀 땀범벅이 된 화안의 볼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맞아, 얘기야, 용이네, 차수마용(車水馬龍.)이야"

엄마는 칼을 들고 화안의 방에서 나왔다. 화안은 다시 쪼그리고 앉았다. 엄마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자 화안도 즐겁게 따라 불렀다.

"이비야야이비야비야-"

저건 뭐야?

화안은 침대 옆에 서서 엄마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쳐다보더니 짐작은 색상의 치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새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화안은 "정말 이뻐!" 라며 칭찬해줬다.

엄마는 옷을 입던 손을 멈추고 이제 겨우 두 살이 된 아이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꼬맹이가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있잖아. 몇 개 밖에 모르는 단어로 말이야."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꼬맹이는 해시시 달려오더니 아빠의 큰 손을 잡고 엄마 치마를 가리켰다.

"아빠, Schau neue, schon."

독일어로 '봐봐, 새 거야, 예뻐'라는 뜻이었다.

수수께끼

화안의 엄마는 중국 사람이었다. 화안이 태어나서부터 쪽 중국어로만 화안과 대화를 해왔다. 외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안의 아빠는 표준 독일어를 쓰는 독일 사람이어서 화안과의 대화는 독일어로 했다. 엄마 아빠는 영어로 대화하지만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화안의 가족은 스위스에서 살았다.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방언을 사용한다.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언인 민난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쓰는 독일어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화안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는 스위스어로 대화했다.

눈도 코도 얼굴도 동그란 화안은 네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과연 어떤 광경일까?

어린이집에서 화안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 눈이 큰 수잔은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수잔은 "음, 안드레아스가 아마도 중국어로 말하는 거 같은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이 엄마가 오면 물어봐야지."하고 생각했다.

집에서도 화안이 혼자말로 엄마 아빠가 처음 듣는 말을 하면 엄마는 아빠한테 물었다.

"독일어인가요?"

"아니."

이번에는 아빠가 물었다.

"중국어?"

"아니."

"그럼 스위스어구나!"

엄마 아빠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화안은 엄마 아빠의 곤혹을 완전히 무시하고 집토로 꼬마 돼지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어린이 집에 화안을 데리러 오자 수잔이 물었다.

"어우즈가 뭐예요?"

엄마는 재미있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원숭이예요! 우리 안드레아스가 말한 것은 중국어의 원숭이예요!"

이번에는 엄마가 수잔에게 물었다.

"루어이는 무엇이고 웨이러우는 무엇입니까?"

수잔이 알려주었다.

"스위스어의 '사자'와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빠는 놀랍다는 듯 말했다.

"정말 놀랍네, 같은 독일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었네!"

화안 때문에 모두가 바빠졌다. 수잔은 중국어를, 엄마는 독일어를, 그리고 아빠

는 스위스어를 배우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른들은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야 화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빠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말했다.

"아직은 영어를 모르니 참 다행이야....."

흑인

어느 날, 버스에서 예쁜 흑인이 서있는 것을 보았다. 화안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누구야?"

"흑인, 흑인이란다."

엄마는 대답하며 한편으로 생각했다. 난생 처음으로 흑인을 보는 사람이 만약 '검을 흑'자가 가리키는 뜻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눈으로 색깔을 구분하여 색깔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흑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그들의 특징을 터득하고 '흑인'이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꼬맹이는 '검을 흑'의 뜻도 모르고, 더욱이 이 세상에는 백인, 황인, 홍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 지금 버스에 있는 그 흑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꼬맹이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눈치였다. 하지만 과연 화안이 관찰하고 비교하고, 또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지는 엄마도 궁금했다.

엄마는 집에 돌아와 영문지 《헤럴드 트리뷴》을 보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크! 제임스 볼드윈이 죽었구나!"

볼드윈은 미국의 유명한 흑인 작가였다. 사진 속의 그는 큰 밀짚모자를 쓰고 너무나 해맑게 웃으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

화안의 큰 소리에 신문을 보고 있던 엄마는 깜짝 놀랐다. 화안이 볼드윈의 사

진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다.

"흑인, 엄마 봐, 흑인 여기도 있다!"

엄마는 사진을 자세히 드러다 보았다. 흑백사진인데다가 피부색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두살내기 꼬맹이는 어떻게 그가 '흑인'이었음을 알았을까?

화안은 흑인의 일은 벌써 잊고 반달가슴곰과 늑대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한편으로 평론도 아끼지 않았다.

"엄청 크다! 사람도 문다! 아양한다! 넘어졌어....."

엄마는 화안의 잘생긴 두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음속으론 감탄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이란 타고나길 호기심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도대체 어떤 조물주가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 낸 것일까? 엄마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엄마는 화안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흑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집에 서양인이 오면 화안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독일어로 인사를 했다. 동양인이 오면 바로 중국어로 인사를 했다. 마치 머릿속에 버튼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거기에 맞는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말이다. 꼬맹이가 도대체 어떻게 서양인과 동양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엄마는 너무나 신기했다.

닥스훈트

맞은편에서 닥스훈트 한 마리가 걸어왔다. 찌리몽땅한 다리에 원통처럼 생긴 몸통이, 배는 거의 바닥에 닿을 기세였다. 화안은 강아지를 가리키며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다.

"저건 뭐야?"

"닥스훈트야."

화안은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다스후트"하고 따라 불렀다. 그리고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이어서 아빠를 쳐다보며 질문했다.

"Das?"

"Ein Dackel." 아빠가 답했다.

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안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동시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달리는 두 바퀴를 엄마는 "자전거"라 하고 아빠는 "Fahrrad"라고 부른다. 또 어린이집 수잔은 "Velo"라고 하지. 화안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것과 만날 때 마다 세 번씩 질문하고 세 가지 명칭을 기억하곤 했다.

네 번째 언어, 영어에 관해서는 꼬맹이가 헛갈려 할까봐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영어는 어른들 만의 비밀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화안이 날계란 하나를 깨트렸다. 계란 노른자가 바닥에 쏟아져 하얀색 카펫 쪽으로 퍼지고 있었다. 사고를 낸 장본인이 외쳤다.

"엄마, Look—"

"아이야야 !"

엄마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소리쳤다. 이어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한창 바닥을 닦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화안을 바라보았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

"Look, 엄마!"

꼬맹이는 엄마가 놀라하는 기색이 재미있기라도 한지 또 말했다.

"Look!"

엄마는 바닥을 닦던 걸레를 던지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맙소사. 화안이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왕자와 결혼하다.

화안과 다리가 흰 안디가 서로 장난감 트럭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안디가 이겼다. 안디는 트럭을 꼭 껴안고 안간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었다.

화안이 갑자기 손을 놓더니 한발 뒤로 물러섰다. 엄마가 화안을 위로하려 다가 가려고 할 때 두 살내기 꼬맹이는 손가락 두 개를 치켜세우더니 사냥꾼이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어서 안디를 겨누며 "빠방빠방" 입으로 총소리를 냈다. 화안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죽었다!"

엄마는 등골이 섬뜩해졌다. 오직 그녀만이 화안의 "살인"영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다.

"늑대는 외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삼켜버리고 피곤해지자 침대에 누워 쿵쿵 자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화안은 서로에게 기대어 광복서적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명작동화를 읽고 있었다. 책에 그려진 늑대는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커다란 주둥이에 날카롭고 하얀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 혀는 새빨갰다.

"사냥꾼이 왔어요!" 성격이 급한 화안이 엄마대신 말했다. 화안은 이 이야기를 수십 번도 넘게 들어서 모든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 어떤 사냥꾼이 할머니 댁 앞을 지나고 있었습시다." 엄마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집안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자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듣지 싫은지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시다. 그는 사냥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안은 이야기에 몰입하였다. 두 눈은 책속의 긴 사냥총을 보고 있었다.

"팡—, 사냥꾼은 총을 쏘아 늑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르고 외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구했습시다."

이야기를 마친 엄마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다. 늑대도 토끼와 마찬가지로 동물이다. 하지만 동화 속 늑대는 늘 비참하다. 누군가가 늑대의 배를 찢지 않으면

꼬마 돼지 세 마리리가 늑대의 꼬리에 불을 붙이거나, 또 아니면 양 엄마가 늑대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돌을 가득 채워 넣어 강물에 던져 죽게 한다. 엄마는 늑대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늑대의 비운에서 엄마는 동화 속에 숨겨진 잔인함과 폭력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는 이미 서구에서는 신세대 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읽었다. 봐봐!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했지만 부하들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말했습니다.

“아니면 너희들의 머리를 벨 것이다.”

부하는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망가세요! 제가 사슴 한 마리를 죽여 심장을 꺼내 공주님의 것이라고 둘러대고 왕비한테 드리겠습니다.”

백설공주가 죽지 않자 왕비는 노파로 분장하고 공주집으로 갔습니다. “늙은 여자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명주끈으로 백설공주의 목을 꼭 조였습니다. 백설공주가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하자 산속을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빗에 독약을 발라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이번에는 독사의 발과 두더지의 눈, 두꺼비의 꼬리, 그리고 도마뱀의 날개로 맹독을 만들어 사과에 바른 후 백설공주에게 먹였습니다.....

엄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읽으며 소름이 끼쳤다. 짧은 스토리 속에 온갖 살인법이 모두 등장하였다. 칼로 머리를 베고, 가위로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고, 명주끈으로 목을 졸라죽이고, 독약을 먹게 하는 등.....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어떻게 두 살내기한테 들려줄 수 있지? 엄마는 동화책을 내동댕이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화안은 크면서 인간의 추악함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굳이 두 살 때부터 인간들의 원한 같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기엔 동년 시절이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한지 않은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꺼내 들었다.

“도적들은 카심을 보자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간이 배밖으로 나온 도둑남아! 감히 여기서 두둑질을 하다니, 어디 내손에 죽어봐라.’ 카심은 찌소리 내지 못하고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리바바의 영리한 하인 몰자냐는 가죽단지 속에 숨어있는 도적을 발견하고 기름 한통을 부엌으로 가져가 큰 가마에 부글부글 끓여서 가죽단지에 부어넣었습니다. 가죽단지 속 도둑들은 찌소리 못하고 죽었습니다.”

엄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엄마는 황급히 《백설공주》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책장 제일 높은 곳으로 옮겨 놓았다. 설령 화안이 의자를 가져 와도 절대 손이 닿지 못할 곳이었다. 화안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책들이 있었다. 아이다의 꽃, 완두콩 오형제, 장난감 병정,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 광복서점의 동화시리즈가 집에 도착한 이후로 화안은 자동차 놀이도 하지 않고 매일 책만 들고 수십 번씩 펼쳐보았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갔다.

엄마는 높은 의자위에 서서 아들의 이야기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자신이 책을 일일이 검열하고 있는 경찰 간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옛날부터 경찰 같은 사람들을 혐오해왔다. 엄마는 피식 웃었다. “경찰도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시민을 두 살내기 어린아이로 다루었을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시간,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는 바닥에 엎드려 말이 되었다. 화안을 태우고 몇 바퀴 돌고나서 이내 백기를 들었다. 아빠는 헐떡이며 말했다.

“오마이갓, 더 이상은 무리야, 아들 좀 데려가줘!”

엄마는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애처로운 눈길로 남편의 머리를 토닥거리며 화안을 불렀다.

“방으로 가자. 이야기책 읽어줄게!”

말타기 하던 꼬맹이는 얼른 아빠 등에서 내려와 책장 쪽으로 가버렸다. 책장을 가득채운 알록달록한 책들을 바라보며 뒷짐 지고 고민에 잠겼다. 마침내 결심이라도 한 듯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신데렐라 입을 거야, 개구리 왕자도!"

화안은 베개에 걸터앉았다.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음—" 한참 고민하더니 "공주님!"라고 답했다.

"너는 남자에잖아?" 화안은 엄마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화안은 남자애가 아니고 남자야! 엄마는 여자고!"

"그래 알았어. 화안은 남자야. 남자는 왕자는 될 수 있어도 공주는 못 돼. 화안은 왜 공주가 되고 싶어?"

"공주가 되고 싶은 것은 음....." 화안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다.

"왕자랑 결혼하려는 거지."

엄마는 《신데렐라》를 읽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예쁜 유리구두를 신었습니다. 왕자는 날아갈 듯 기뻐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책에는 신데렐라가 무릎을 낮춰 숙스러운 표정으로 왕자가 손에 뽀뽀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다.

"신데렐라는 마침내 왕자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뭔가 달콤한 것을 먹다가 모래를 씹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신데렐라이야기는 두 살배기 여자애와 남자애들에게 여자의 최대 행복은 왕자랑 결혼하는 것이며 왕자가 되려면 잘 생긴 외모에 돈이 있고 국왕과 같은 아빠가 있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허리 굽혀 인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야기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그녀는 드디어 왕자랑 결혼했습니다!"였다.

"왕자는 무슨!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왕자인 마당에....." 엄마는 생각했다. "현대판 왕자"는 거상의 후예여서 부에 부를 축적하고 부로 나라도 대적할 만한 부모를 두어 누구나 그에게 굽실거린다. 현대판 왕자는 외모도 출중하다. 어려서부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혹여 치아가 비뚤비뚤 자랐다고 해도 치과의사가 예쁘게 교정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필요없다. 하지만 "현대판 공주"는 왕자에게 시집가지 않아도 된다. 공주가 아닌 신데렐라라 해도 왕자와 결혼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딸이 있다면 신데렐라이야기는 거짓이라

고 꼭 말해줘야 한다.

화안이 잠들었다.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장면이 있는 페이지에 얼굴을 던 채.

야심

루어빙이 유럽에 친구를 만나러 온다. 화안의 엄마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다. 그녀는 저녁 식탁에 마주앉아 남편에게 내일 찾아올 대학동창에 대해 설명했다.

"제 친구는 무척 예쁘고 늘 차가워 보여요. 대학교 때 저는 루어빙의 고고함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우스갯소리를 들어도 웃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히터덕거리며 웃지 않았어요. 모두들에게 제 친구는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흉내 내려고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화안의 아빠는 건성으로 "음"했다. 그는 대만의 "깊이 있는" 여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화안의 아빠는 홍콩배우 중추홍과 같은 들고양이타입이나 작가 싨마오와 같은 분위기 있는 여자를 좋아했다.

엄마는 계속해서 추억 속에 잠겨 있었다. "루어빙은 옷에 까다로워요. 골든 미쓰가 된 후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 아니면 입지도 않았어요. 강아지를 싫어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싫어해요. 한번은 학교 잔디밭에서 토실토실하고 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강아지 세네마리가 엄마강아지를 따라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너무 예뻐서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었죠. 마침 제 친구가 지나가던 길에 목격하곤 '징그러운 강아지들, 몽글몽글한게 너무 끔찍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서있었죠. 제가 새끼 강아지를 만지던 손으로 자기를 만지기라도 할까봐요."

"엄마, 이리 와." 저녁을 마친 화안이 엄마의 옷자락을 당기며 "여기 와서 이야기책 읽어주세요!" 라고 졸랐다.

"안돼! 엄마가 말했지, 엄마랑 아빠가 식사할 때는 화안이랑 놀아 줄 수 없다고. 5분만 기다려."

엄마는 조금 무서운 말투로 말했다. 화안이 자기 말에 끼어든 것이 조금 화났던 것이다.

"어응~" 화안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렸다. 화안은 평소에도 유난히 목소리

가 쨍쨍했다. 아빠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엄마는 귀청을 찌는 듯 한 울음소리를 참아가며 꼬맹이와 투쟁했다.

“화안아,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 계속 울면 엄마가 구석에서 벌을 서게 할거야.”

뒤로 자빠질 듯 울고 있는 꼬맹이는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있었다. 눈물 한방울이 입가로 흘러내렸다. 아빠는 수저를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뺐다. 허리를 굽혀 아들을 안았다. 화안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다. 화안은 독일어로 아빠한테 일곱 마리 까마귀를 주문했다.

엄마는 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이러면 제가 애 교육을 어떻게 해요?”

아빠와 아들은 엄마의 원망을 듣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일곱 마리 까마귀》를 읽고 있었다. 아빠 품에 안긴 화안의 볼에는 눈물흔적이 남아있었다.

루워빙이 오기 전, 엄마는 이미 스페인 가정부를 불러 집안 청소를 했다. 그래도 30분 정도 엄마가 직접 구석구석 손을 봐야만 했다. 스페인 가 정부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녀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쫓겨넣는 것을 좋아한다. 부엌의 도마 위에 빛이 놓여있는 것을 보아도 욕실 원위치에 가져다 놓을 줄 모른다. 부엌에서 빛이 들어갈 만한 틈을 찾아 그 속에 밀어 넣는다. 그리고 도마 위는 깨끗이 한다. 거실 차탁위에 만년필이 놓여있으면 절대로 그 만년필을 서재로 가져가지 않는다. 역시 거실에서 빈 공간을 찾아 만년필을 집어넣곤 한다. 차탁은 역시 깨끗하게 해둔다.

엄마는 자주 빛이 맥주병에 꽂혀있고 만년필이 어항 밑에 숨어 있고, 돌돌 말아진 더러운 양말이 꽃병에 들어가 있으며 주걱이 장난감 트럭에 올라가 있는 등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기이한 발견이 있기 전까지 엄마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다녔다. 지금 엄마의 분실물 리스트에는 가계부 한권(도마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얼굴에 바르는 크림 하나(냉장고에 있을 수도), 털장갑 하나(어쩔 화장실에 있을 수도),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다. 하도 사라진지 오래되어 엄마는 일일이 기억도 나지 않았다.

스페인 가 정부는 일주일에 세 번, 매번 두 시간씩 일을 했다. 엄마는 시간당 대만 돈 350원 상당의 수고비를 드렸다. “그나마 다행이지 뭐” 엄마는 돈을 세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변기솔로 설거지를 하지 않고 젓가락을 배수관에 박아두지 않은 것만으로 천만 다행이지. 그럼, 다행이지."

하지만 결백증이 있는 친구가 온다니 엄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카펫을 뒤집어 밑에 혹시라도 CD케이스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책장 뒷면 벽 모서리를 확인했다. 화안의 구급차 한 대가 보였다. 방 청소가 끝나자 엄마는 단장하기 시작했다. 시리얼이 붙어있는 추리닝바지를 벗어던지고 우유 비릿내가 나는 머리를 씻었다. 거울을 쳐다보니 아침에 화안이 립스틱으로 문신처럼 그려놓은 가로 세로선이 남아있었다.

엄마는 오늘 각별히 신경을 써 치장을 했다. 루어빙한테 아줌마가 다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이다. 치장을 마친 엄마는 다시 한번 거울을 비춰보았다. 이마위에 흰머리 몇 가닥이 희끗거렸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은 희미한 주름살도 보였다. 엄마는 문득 오래전 한 엄마가 거울을 마주하고 화장을 마친 후 긴 한숨을 내쉬며 옆에 기대어 앉은 열 몇 살의 딸에게 "애야, 엄마 늙었구나. 봐, 엄마 서른여섯인데 벌써 주름이 이렇게 많단다."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애타었던 여자애는 지금은 거울 속 서른여섯 살의 여인이 되어 우주의 섭리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기세로 자신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지막하게 내뿜는 엄마의 한숨소리와 함께 현관의 벨소리가 들려왔다. 벨소리가 유난히 컸다.

루어빙은 독립심이 강한 여자였다. 외국에 가도 누가 공항까지 마중가고 배려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귀찮아! 이별인사에 악수에 형식적인 인사말 주고받고 딱 질색이야!"

현관문이 열리고 두 여자는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

"어머, 너 왜 이 모양이 됐니, 완전 아줌마야!"

엄마는 두 팔로 반갑게 친구를 안아주었다. 루어빙의 몸에서 열은 자스민향이 전해왔다.

손님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왕자님은?"

"넌 새끼동물들 싫어하잖아. 어린이집 보내버렸어."

화안이 돌아올 무렵 루어빙은 한창 일 년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일 년 쉬는 동안 반년은 서유럽의 미술관과 명승지를 돌아다니고 두 달은 중국을 돌 계획이었다.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시베리아를 지나 베이징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머지 넉 달은 문학적인 논문 몇 편 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엄마." 화안은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낯선 손님을 관찰하고 있었다.
"누구야?"

"타이베이에서 온 쌀쌀맞은 이모야. 우리 화안이야, 이리와 악수라도 하렴."

악수하면서 화안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쌀쌀맞다는 이모를 바라보았다.

손님도 어색한 표정이었다. 화안을 안아주고 싶은 충동도 상냥한 척 애와 친한 척 할 마음도 없었다. 화안은 이미 루어빙의 무릎 앞에 앉아 그녀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거 뭐야? 엄마"

"목걸이, 그건 목걸이라고 해."

"이빠요!"

화안은 루어빙의 센스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하지만 오늘 놀러온 이모는 자기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이모들과는 다르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었다. 화안은 이내 배 만들러 갔다.

"넌 어떻게 지내?"

루어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구겨진 실크바지를 털고는 우아하게 박하차 한 모금 마셨다.

"음—, 나야 뭐"

엄마는 화안에게 줄 우유를 준비하며 말했다.

"아침 7시쯤 아들이랑 일어나서 아침 먹이고 씻기고 귀저기 갈아주고 옷 입혀 주고, 세수해라 양치해라 독촉하고. 그리고 나도 옷 갈아입고 9시 전까지 화안을 어린이집에 데려가야 해. 10시가 되어서야 내일 시작해....."

"글 씨?"

"아니, 읽기부터 시작해, 신문에 잡지에 읽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어. 원고 마감시간이 다가오면 11시부터 꼬박 오후 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말이야. 그러다 4시가 되면 부랴부랴 어린이 집에서 애를 데려와

야 해. 4시 이후 모든 시간은 꼬맹이 꺼야. 공원에서 한 시간 놀고 집에 와서 저녁하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책 읽어주고, 저녁 9시 잠자리에 들 때 까지 애 시중만 들어. 그리고 나면 나도 시체가 되어버려."

루어빙은 안쓰러워하는 눈길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안이 태어나기 전에는 너도 계획이 많았잖아....."

"그야 물론이지." 화안이 엄마의 말을 잘랐다. 엄마보고 구멍 보트를 배에 실어 달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 최근 서양문학비평이론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 같은 것 말이야. 이론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작품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해체주의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는 전혀 몰라. 또 동유럽의 당대문학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헝가리와 체코라든가, 아니면 독재와 빈곤의 루마니아라든가. 그거 알어? 이오네스코의 작품이 또 루마니아에서 연극으로 나온대. 그 사람은 불어로 극본을 쓰지만 영락없는 루마니아 사람이야. 안돼! 정말 못살아."

화안이 녹음기 앞에 앉아 열심히 녹음 테이프 필름을 뽑아내고 있었다. 빼낸 필름은 이미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었다.

루어빙은 엄마가 달려가 테이프를 뺀 것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화안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성격은 아닌가 보다."

엄마는 연필을 꺼내 녹음 테이프 가운데에 집어넣어 테이프를 되감았다.

"루어빙, 넌 꼬마 원숭이가 조용히 앉아 책 보는 거 본적이 있어?"

"화안아, 백설공주 볼까?"

엄마는 비디오를 틀었다. 엄마는 백설공주로 반시간 정도는 조용히 지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당대 중국 작가들의 소설도 많이 읽어보고 싶어. 북쪽 작가에서 남쪽 작가들 작품까지 다 읽어보고 평론하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어. 너처럼 중국에도 가보고 싶어. 티벳에서 두 달, 산베이(陝北)에서 한 달, 상하이와 베이징에도 한 달씩 있고 싶어. 내몽고 외몽고에도 가고 싶고. 그리고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을 다니며 예쁜 강들을 구경하고 싶어."

"멋진 인터뷰 관련 내용도 쓰고 싶어. 나라를 테마로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거

야. 제일 재미있는 방식으로 가장 지루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싶어. 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TV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

"무슨 말이야?" 루어빙은 의아한 듯 물었다.

"넌 TV를 우습게 보았잖아."

"글쎄, 내말 들어봐!"

엄마는 TV를 힐끔 보았다. 일곱 난쟁이가 깊이 잠든 공주를 둘러싸고 뭐라고 쭉덕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유럽 시리즈를 만드는 거야. 나라별로 영상을 만드는 거야. 스위스편에서는 제목을 《누가 진정한 스위스인일까?》로 정하고 스위스의 다양한 언어와 종족, 특이한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 나라의 경치와 사람들을 보여주는 단순한 스케치영상이 아니라 날카롭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물론 프로그램에서 작가의 개성과 시각이 보여야 돼. 책처럼 말이야. 스위스 편이 끝나면 독일-서독과 동독편을 만들고, 매 편마다 책처럼 저작권을 따내 출판하고 발행하는 거야....."

말하는 동안 엄마의 눈이 반짝거렸다.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루어빙은 찬물을 끼얹었다.

"글쎄, 얼마나 볼지~."

"왜 없다고 생각해? 야~아!" 엄마는 펄쩍뛰며 말했다.

"타이완에서는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불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타이완 사람들 예전에는 자기가 먹고살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부유해 졌잖아. 이제는 점차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 할 때야.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해. 넓은 마음으로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그리고 중국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

"엄마." 화안이 엄마의 치자자락을 당겼다.

"쉬했어."

"못살아—"

엄마는 쭈그리고 앉아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지독했다.

"쉬하기 전에 말해주면 안돼? 쉬 다 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스위스 아가들은

27개월 정도에 귀저기를 떼고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대. 화안도 이제 며칠이면 27개월인데 엄마 도와주면 안될까?

엄마는 화안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TV를 껐다. 색연필과 도화지를 꺼내 바닥에 펴 놓으며 화안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리고 있잖아."엄마는 계속해서 할 말이 남아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어. 어린이 책을 내는 거야. 추거(楚戈)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거야. 추거라고 그 늙은 친구 알아? 타이완에서 특색이 다른 열 가정을 골라 소개하고 싶어. 지아딩(茄楚)의 어부집, 핑둥(屏東)의 농가, 산이(三義)의 객가, 지룽(基隆)의 광부집, 란위(蘭嶼)의 원주민가, 타이둥(台東)의 유목가정 등 말이야. 물론 애가 있는 집들이어야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이의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거야. 우리가 본 것을 추거는 그림으로 그리고 나는 글로 써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어린이 책 하나로 엮어 내는 거야. 그래서 타이완 아이들이 타이완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어.—어때?"

"배고파, 엄마, 배고파!"

화안은 어느새 또 엄마 옆에서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 꼬맹이는 복룩한 배를 부등켜 안고 말했다. 배가 많이 고프다는 의사표현이었다.

루어빙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온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크레용을 주었다. 거실은 어느새 아수라장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사진첩이 뒤죽박죽으로 되어있었고, 블록들이 무너져 있었다. 책들은 책장에서 떨어져 있었고 방석은 의자에서 내려와 무더기로 쌓여져있었다.

엄마는 화안에게 햄두부샌드위치 하나를 쥐어주고는 널브러져있는 완구, 책, 방석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소파로 가서 앉았다.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루어빙은 엄마를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꿈과 계획들이 애 엄마가 된 시점부터 다 실현불가능이 되어버린거지? 안그래?"

엄마는 힘없이 소파에 누웠다. 그리곤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래서 후회해?” 질문은 던지고 있는 루어빙의 얼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인생을 전문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화안은 살며시 소파 위로 올라왔다. 엄마위에 딱 붙었다. 머리는 엄마의 가슴에 대고 있었다. 편안함과 만족과 고요함 속에 엄마의 심장소리와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두 손으로 화안을 감쌌다. 턱으로 화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래도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할머니

"엄마, 일어나!" 화안은 손가락으로 굳게 닫혀있는 엄마의 눈꺼풀을 억지로 벌렸다. 마치 검시관이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엄마는 평소와 달리 금방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위로 가져갔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불 틈새로 들려왔다.

"할머니한테 가봐, 할머니보고 아침 달라고 해."

그래,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이었다. 화안은 신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 부엌에서 노쇠하지만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굿모닝, 왕자님!"

엄마는 다시 달콤한 잠을 청했다. 한편으론 늦잠 잘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거슴츠레하게 떠진 눈에 부수수한 머리, 엄마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침 식사는 이미 식탁에 놓여있었다. 어머니께서 구운 케이크와 빵, 우유가 놓여있었고 커피포트 밑에는 촛불까지 켜져 있어 따뜻했다.

"굿모닝!"

아침 인사를 하고 막 앉으려던 엄마는 어머니가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오마이갓! 아가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맨발은 안돼. 애가 일어 죽을 려고—"

엄마는 발을 의자 안쪽으로 쏙 집어넣었다. 그리고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이젠 됐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가야, 머리는 차게, 발은 뜨시게—"

"네네, 머리는 차게, 발은 뜨시게요" 엄마는 할머니 흉내를 내며 말했다.

"의사를 망하게 했던 그 말! 독일의 속담이죠. 머리가 뜨시고 발이 차야 의사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화안의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여보, 당신 손자가 마술 부리는 거 와 구경해요!"

할아버지가 두 사람 쪽으로 고개를 숙 내밀며 말했다.

엄마는 커피를 마시며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머리가 온통 꿈틀꿈틀한 아이가 당장이라도 쓰러질듯 마차를 잡고 서있었다. 동그랗고 오동통한 볼에 손은 토실토실했다. 그 마차는 할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목공에게 부탁해 제작한 것이었다. 지금은 화안의 방에 놓여있다. 화안은 올라 탈 때마다 엄마한테 정중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안녕! 화안 일하러 갔다 올게! 뽀뽀."

목마 옆에 있던 금발의 애기는 지금 한창 위층 침실에서 늦잠을 자고 있다. 평소라면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8시 즈음이면 사무실에 도착해 중동의 정세에 대해 고민하고 독일의 미래 경제 추이에 대해 연구하고 또 내년의 투자 시장에 대해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은 침대에서 늦잠을 누리고 있다. 평온하게 말이다. 그는 아래층 식탁에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래층의 짙은 커피향이 위층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여기는 남편의 엄마집이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사진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어머니의 책자 속에는 화안의 아빠가 태어나서부터 14살 때까지의 성장과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 책자를 며느리한테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화안의 엄마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남자는 온전히 너의 것이지만, 아내인 너의 것이지만, 과거에는 나의 것이었어. 엄마인 나의 것이었어.

"그래도 한 장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는 자신한테 물었다. 2년 동안 기록해온 "화안의 책"에는 그가 막 태어나 피범벅이었을 때 사진도 있고 세 식구가 2년 남짓 함께 지내 온 흔적과 웃고 울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먼 훗날, 화안의 엄마도 백발이 되어 어느 한 젊은 여자에게 말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의 이 남자는 온전히 너의 것이지만, 아내인 너의 것이지만, 이 남자의 과거는 엄마인 나의 것이야"라고.

어쩌면 엄마는 거꾸로 말할지도 모른다. "이 남자의 과거는 엄마인 나의 것이야.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아내인 너의 것이니, 가져가라!"라고 말이다.

갑자기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엄마는 자신의 비장함에 감동했

다. 접시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케이크 옆에 떨어져 이슬처럼 빛났다. 케이크는 여러 층으로 만들어졌다. 초콜릿과 아몬드가 한층한층 포개져있었다. 아름다운 예술품 같았다.

이 케이크를 만든 일흔다섯의 연로한 여자는 또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엄마는 겨우 자신의 비장함과 연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꽤 꽤"하는 오리소리와 화안의 떠나갈 듯 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열여섯의 마리아는 커다란 눈에 하얀 스커트를 입고 사과나무 밑에 서있었다. 5월의 사과나무는 잔잔하고 향이 가득한 꽃으로 장식되었다. 마리아는 사과나무 밑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하얀 사과 꽃이 편지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마리아는 편지 주인과 결혼하고 남자에 둘을 낳았다. 남자애는 사과나무와 쫓소, 가족의 향을 맡으며 자랐다. 하지만 독일은 점차 멸망해가고 있었다. 애들의 아빠는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마리아에게 뽀뽀를 하고는 돌이 깔려있는 마당을 지나 먼 여정에 나섰다.

"이 옷을 내가 가져." 어머니가 말했다. 속이 흰히 보이는 레이스 블라우스였다. 옷자락에는 빨간색 수가 들려져 있었다. 엄마는 블라우스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레이스 무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당연히 새것이야." 어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옷을 만지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소련의 전쟁터에서 나한테 보내온 거야. 40년 동안 간직했어."

엄마는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옷장에 넣었다. 엄마는 깊은 슬픔에 젖어들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힌 이국땅에서, 피비린 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에서, 독일 군관은 이 블라우스를 꼭 손에 잡고 있었다.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장해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달래며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편지를 읽고 있을 마리아에게 보냈다.

군관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힌 곳에서,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다시는 사과나무 아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도 어머니한테서 받은 블라우스를 입지 않았다. 차마 입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는 미망인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폐허 속 여기저기가 미망인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비극과 참사로 사람들의 눈물은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나라도 망했는데 한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질지 언정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걸!” 아버님은 으쓱해서 말했다.

“그때 너의 어머니는 과부에 애물단지 둘씩이나 달고 있었잖아. 너의 어머니가 기를 쓰고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결혼해줬겠니?”

어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애를 달래듯 말했다.

“그럼그럼, 온 동네 여자들이 모두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요!”

돌이 깔려 있는 길을 밟고 사과나무 밑으로 온 사람은 동쪽에서 온 타향인이었다. 이 남자도 마리아의 커다란 눈에 빠져버렸는지 사과나무 밑에 머물기로 했다. 타향에서 온 이 남자도 사실 동쪽에 있는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다. 동쪽에 있는 고향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동독—베를린 담의 저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연세를 생각해야지. 우리엄마,” 이미 커버린 남자가 마리아에게 한 소리했다.

“애를 낳으면 아마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못난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로 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애기의 ‘응애—’ 소리는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었다. 세례를 받던 교회는 미래에 대한 축복과 기도로 가득했다. 그 애가 삼십년 후 중국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돼서부터 큰 애가 어지럼증세와 무기력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막 대학교에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큰 애는 참 똑똑한 아이였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멈출 줄 모르는 아이였어.....”

마리아는 2년 동안 병상을 지켰다. 늙름했던 아들이 점점 작아져 가는 과정을, 근육과 관절 하나하나가 줄어들어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혔다가 어느 날 관속에 눕히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왜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조금만 더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물었다.

“애가 내 품속에서, 다 큰 한 남자가 내 품속에서 호흡을 멈춰가는 것을 나는

지켜만 보았어.”

엄마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셋이 마당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는 생각했다. 화안의 아빠도 너무 하네, 여태까지 자고 있다니. 화안을 데리고 수영하러 간다고 했는데.

수영에서 돌아온 후, 엄마는 화안을 재우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화안네 세 식구가 어제 벗어놓은 더러워진 옷들은 이미 깨끗하게 세탁된 후 보송보송 말리워서 네모반듯하게 개어져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리고 있는 것은 엄마의 속옷이었다.

“오마이갓! 어머니”

“저저, 제 옷은 다리지 마세요. 대충 입을 건데요” 엄마는 말을 더듬기 까지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성스레 속옷을 다리고 있었다.

“나는 옷은 다 다려 입어. 하던 김에 너희 식구 옷도 같이 다린 거야.”

엄마는 “속옷은 안에 입을 건데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다리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겉과 속이 같아야지! 속옷도 다리미질해 입으면 쾌적하고 몸에도 좋아!”라고 말했을 것이다.

엄마는 침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마구 쌓여져 있던 이불이 네모나게 개진 채 정연하게 놓여져 있었다. 엄마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내일 외출할 때 방 문 잠그고 나가요. 어머니께서 청소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안돼,” 아들이란 사람이 반듯하게 개어놓은 이불을 깔고 누워있었다. 신발은 신은채로 발은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일을 못하게 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셔. 내일 '양노원'에 봉사하러 가서 '노인'들을 위문한대. 어찌면 그 '불쌍한 노인'들한테 노래도 들려줄 생각이신 것 같아!”

산모에게 보내는 글

중민에게:

임신한지 벌써 7개월이 다 되어가는구나. 타이베이의 매미들이 울어댈 때 즈음 아가가 태어나겠구나. 지금 너의 심정은 어때? 기쁠까? 아니면 초조할까?

화안이 태어나기 전, 난 애 아빠와 함께 6주 동안 "라마즈 산전교실"에 다녔어. 타이완료양원—지금은 타이안의원으로 개명한 곳인데 그 곳에서 만든 예비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자기 의지와 호흡법으로 출산에 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과정이야. 6주간의 출산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출산이라는 기절초풍할 찢어지는 아픔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 병상에서 죽을힘을 다해 호흡조절을 했지만 진통이 몰려오는 순간 나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렸어. 개똥같은 라마즈. 의지따위로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둥, 다 헛소리였어!

그러니 반드시 너의 남편 잔챙하고 같이 분만실에 들어가야 해. 아이는 두 사람의 것이니 출산도 두 사람의 일이야. 의사와 간호사가 수많은 환자들 때문에 정신없을 때 오직 남편만이 너의 손을 꼭 잡고 진통이 찾아올 때 마다 함께 견뎌줄 수 있어. 출산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두 사람이 먼저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이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야.

주치의였던 미국 의사선생님이 해준 말인데 70%의 중국 남성들은 아내가 출산할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대. 어떤 사람은 "출산은 여자들의 일이다"라고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보는 것이 무섭다"고,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피를 보면 재수 없다"는 말을 믿기 때문이라네.

피범벅하고 태어난 화안은 집게로 집어 꺼냈어. 드라마에서 보던 시나리오와는 달리 나는 화안을 바로 안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행복과 사랑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 하반신은 마취되어 주검 같았고 몸과 마음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었어. 애기를 한번 쳐다봐줄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 의사선생님이 탯줄을 자르자마자 어린 생명을 아빠의 거대한 손에 안겨 주었어.

"피와 양수로 범벅이 된 아기가 나의 손바닥에 와 닿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애

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화안의 아빠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지. “잊지 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화안을 안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주의 섭리를 직접 증명하고 이처럼 생생한 새 생명을 안다니 이것이야 말로 그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지만 그 특권을 거부하는 남자들도 있다네.

기억나? 내가 모유수유하고 있을 때 너희 대학원생들을 옆방 응접실에 불러 수업했던 것을. 너희들 오기 전에 수유를 했었어. 언제나 통 유리창 앞에 앉아 멀리 관인산과 단수이강을 바라보곤 했어. 아이는 엄마 젖을 먹으며 엄마의 체온과 심장소리를 느끼고 있어. 나는 화안에게 1년 동안이나 모유수유를 했어. 지금도 다른 엄마가 수유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게 돼. 오동동한 작은 손이 엄마 젖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아기의 만족스럽고 편안한 얼굴을, 그리고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돼.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시무룽이 중산베이루의 푸리에서 맛있는 것을 사준 적이 있어. 밀크셰이크 한 컵 시켰는데 나는 잔을 내려놓지도 않고 별컹별컹 한번에 해치웠어. 한잔 더 주문했는데 역시 단숨에 해치웠어. 또 시켰어. 시무룽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도 못하더라. 난 너무 행복했어. 자신이 마치 입만 찹찹대는 암소 같았어. 생각이라곤 눈썹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몸뚱아리와 식탐, 동물적 생리기능으로만 만들어진 것 같은. 하느님은 여자를 생육하는 매개체로 만들었어. 나는 바로 그 매개체중의 하나였어. 나는 행복으로 가득했어.

너도 모유수유할 수 있겠어?

그리고 “산후조리”도 있잖아. 보통 중국 여자들은 출산 후 한 달 안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외출, 목욕, 머리 씻는 것도 모두 금기잖아. 네가 그럴 마음이 없어도 아마 너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고집하실 거야. 그러지 않을까?

물론 “산후조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요즘은 한의사들도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산후조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현대 물리와 건축에 중국의 풍수오행 이론을 접목시킨 것과 같은 이치야. 하지만 그 이론들이 나한테는 설득력이 없었어. 화안이 태어나서 2 주지나 나는 화안을 안고 관인산에 갔어. 가끔 아이 아빠가 등에 업고 오르기도 해. 태어난지 반달 밖에 되지 않은 애기가 넓은 등판에

딱 붙어 유난이 작아보였어. 길에서 팽이를 메고 지나던 농민이 눈을 동그래져서 묻기도 했어.

"어이쿠, 외국 사람들도 애를 등에 업는구나. 등에 업은 것이 진짜여? 가짜여?"
좀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쫓아와서 애기 손을 만져보고는 일행들보고 "와, 진짜다!"하며 소리치기까지 했어.

나는 출산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수업하러 나갔어. 기억나? 담강대학교 여직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분명히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지만 여교수는 출산휴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정말 믿어지지 않아. 학교에는 불문율의 규칙이 있지. 바로 여 교수는 출산휴가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대신 수업해줄 사람을 찾아야하고 급여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지. 믿겨지지 않지만 이런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되는 규칙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항의 하는 여교수가 한명도 없었다는 거야. 내가 "담강대학은 여교수한테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제기하자 한 여교수가 "누가 없다고 해요? 집에서 두 달 동안 쉴 수 있잖아요. 수업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아 급여를 부담하면 되는걸. 누가 담강대학에 출산 휴가가 없다고 했어요?"라고 하더라.

정말이지, 그런 여교수가 있으니 그런 말도 안되는 대우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때리면 그냥 받아들이니!

너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라고 할지도 몰라. 8월의 타이베이에서 한 달 동안이나 머리를 감지 않는 다고 생각해봐. 아마도 미쳐버릴 거야. 고부간 갈등은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잖아. 산후조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뿐만은 아닐 거야. 며느리는 애기를 옅드려 채우면 더욱 안전하고 두상도 예뻐진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건 안 돼, 애가 숨 막혀 죽어!"라고 할 거야. 며느리는 애기한테 옷을 얇게 입히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럼 안 돼. 애가 얼어 죽어!"라고 할 것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시어머니는 저렇게 하자고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가정은 결국에는 늘 시어머니 의견대로 가지. 시어머니는 늘 하늘같은 분이시고 중국 남성들도 "아들노릇"을 먼저하고, "남편노릇"은 그 다음으로 하지. 갓 태어난 아기는 온 가족의 아기이고 대를 이어가야하는 장손이지 아기를 낳아준 여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지.

서양 가정에서는 간단한 문제야. 아이의 엄마가 가장 많은 권리가 있고 누구나

"낳아준 엄마"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만해. 우리 어머니도 잘 알고 있어. 아기는 자신의 손주이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나의 아들이란 것을. 그러다 보니 아이 양육문제는 옆에서 도와주거나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셔. 때론 나와 다른 견해도 내놓으셔.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언제나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물론, 마지막 결정권은 엄마인 너한테 있어."

나는 서양가정의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어. 세대 간의 경험도 서로 다르고 생각도 서로 다르며 처한 환경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 때문에 육아 문제에 있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맞을 때보다 훨씬 많아. 서로가 아이 양육의 "주권"을 놓고 다투다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렇다면 이 "주권"은 엄마가 쥐고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할머니가 가져야 할까? 나는 엄마의 권리는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제도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중민아, 그렇다고 해서 너보고 아이를 낳고 투쟁하라는 말은 아니야. 어찌 되었든 시어머니도 손주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이 세상에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잘 해결할 수 있어. 두려운 건 미움이지 사랑이 아니잖니? 아무쪼록 너의 아기가 사랑을 듬뿍 받아 태어나고 자랐으면 좋겠다. 8월에, 한없이 큰 기쁨이 너를 맞이할 거야.

화안의 엄마가.....

그의 이름은 "사람"

오랜 이별

엄마가 시내에서 돌아오자 꼬맹이는 보모의 손을 뿌리치고 꽃밭을 따라 달려 나왔다. 두 팔을 벌린 채. 마치 바람을 가르며 날개처럼.

엄마는 몸을 낮춰 똑같이 두 팔을 벌렸다. 두 사람은 활짝 핀 금잔화 옆에서 서로를 포옹했다. 꼬맹이는 엄마의 목, 귀에 뽀뽀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서서 오랫동안 이별했던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또 다가가 엄마의 코와 눈에도 뽀뽀했다.

엄마는 헤어질 때 화안이 핏대를 세워 울며 구슬프게 애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화안도—시내 가—책 살 거야."

볼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비통한 이별이라 해보았자 고작 6시간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엄마는 여리고 자그마한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상냥하게 물었다.

"우리 왕자, 엄마 없는 동안 뭘 했어?"

물어보지 않아도 화안이 뭘 했을지 흰했다. 점심 먹고, 자동차 놀이하고, 보모와 화장실 가네 마네 티격티격하고, 정원에서 블랙베리를 따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바지에 쉬—하고...

꼬맹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뭘 좀 생각했어."

엄마는 피식 웃음이 나올 번했다. 두돌반 밖에 되지 않는 꼬맹이가 "뭘 좀 생각했다"라고 하니? 엄마는 꼬맹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웃음을 참고 진지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생각 했어?"

"음—"꼬맹이는 이번에도 역시 진지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했어."

엄마는 멍칫하더니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잘 못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무릎을 쭈구리고 화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화안은 해맑게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목이 말라"라고 말할 때 와 똑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행복

"남자가 일 때문에 바빠 보내고 있으면 누구도 그에게 '가정은 어떻게 돌보고 있어요?'라고 묻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가 일 때문에 바빠 보내면 사람들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런 멍청한 이중 잣대가 있단 말인가? 왜 남자인 당신이 바빠지면 성공이고 여자인 내가 바빠지면 야심에 눈이 멀어 엄마노릇을 포기한 것인가?"

한바탕 다투고 난 뒤, 엄마는 아빠를 등지고 쳐다보지도 대화하지도 않았다.

화안은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끌고 풀밭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왔다. 풀이 사람보다 컸다.

아빠는 불을 피우고 있었다. 훈제 고기가 정원 식탁에 놓여있었다. 같은 시각 엄마는 잔디 위에 앉아있었다. 햇빛이 보리수나무잎 사이사이로 엄마의 등을 비췄다.

"엄마, 뭐해?" 화안은 친한 친구처럼 다가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엄마는—"엄마는 잠깐 망설인듯하더니 말했다.

"엄마도 뭘 좀 생각했어."

화안은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낚시하는 흥내를 냈다.

"무슨 생각?"

"음—"

엄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꼬맹이에게 대충 둘러대기 싫었다. 이 풀보다도 키가 작은 꼬맹이도 분명히 완전한 인격을 갖춘 하나의 생명이기에

엄마는 이를 존중했다. 하지만 아직 두돌반 밖에 되지 않은 꼬맹이한테 '결혼도 민주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류가 수많은 제도 중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택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인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한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박탈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는 고민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두돌반밖에 되지 않은 꼬맹이한테 세상은 모성애를 칭송하고 여성을 추앙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능력껏 자신의 잠재력과 욕망을 발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는 몰랐다.

"무슨 생각 해? 엄마?" 낚시질하고 있던 쟁구가 깊이 생각에 잠긴 엄마를 불러왔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지금 기분이 별로야!"

엄마는 팔을 뻗어 꼬맹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꼬맹이는 몸을 곳곳이 세우고 엄마의 볼을 만졌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슬퍼하지 마, 화안은 즐거워. 화안이 즐거우면 엄마도 즐거워. 엄마가 즐거우면 아빠도 즐거워."

엄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믿겨지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화안은 너무너무 즐거워. 화안이 즐거우면 엄마도 즐거워. 엄마가 즐거우면 아빠도 즐거워."

엄마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다. 그리고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잠든 것 마냥. 엄마는 풀밭 뒤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무뚝뚝한 심술쟁이 시냇물. 엄마는 드디어 일어났다. 옷에 붙어있는 흙과 풀을 털고는 꼬맹이의 손을 잡고 시냇물을 향해 걸어갔다.

"아빠한테 가보자." 엄마는 말했다.

"아빠는 아마도 땀감을 줍고 있을 거야."

엄마 눈 속에 내가 있어.

"여와(女媧)는 오색 돌을 가득 주어왔어요. 갈대도 가득 베었어요. 아, 갈대는 말이야, 아주 키가 큰 풀인데 강가에서 자라. 우리 마당에도 억새가 자라고 있잖아. 갈대와 억새는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

"여와는 갈대로 불을 피우고 가마에 주어진 오색 돌을 삶았어요. 불은 활활 타 올랐습니다. 오색 돌은 녹아서 반죽이 되었습니다. 반죽은 찰흙 같고 시리어죽처럼 찢득찢득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오후, 모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화안은 엄마 다리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엄마의 긴 머리를 돌리며 장난치고 있었다.

"여와가 왜 하늘에 난 구멍을 메워야했는지 기억나?"

화안은 잠깐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다.

"비가 와서, 공공(共工:중국 신화에서 하늘에 구멍을 낸 사람)때문에"

"그래 맞아, 물을 다스리는 신 공공과 불을 다스리는 신이 싸웠어. 불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뭐였더라?"

"축융이잖아! 엄마 바보!"

"그래 맞아, 축융, 둘이 싸우다가 하늘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어. 그러자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 내렸어. 눈을 모두 쓸어버렸어. 음—눈은 말이야....."

"초원 저쪽에 밀밭이 있지? 눈도 밀밭이랑 비슷해. 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 아, 공공이 물을 채워 넣은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넣은 거야. 눈은 냄새가 좋아. 바람이 불면 파란색 물결처럼 잔잔한 향기를 몰고 와....."

엄마는 맨발로 눈두렁을 밟았을 때의 축축하고 폭신평신했던 느낌을 떠올렸다. 달빛아래에서 파도처럼 출렁이는 벼이삭을 굽어보던 광경을 떠올렸다. 엄마는 이름도 모를 작은 동네 여관에 머무른 적이 있다. 새벽에 시원하고 상큼한 향이 창문 틈을 타고 엄마의 얼굴에 닿았다. 엄마는 상쾌한 냄새에 잠을 깬다. 냄새를 쫓아 가보니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눈에서 오는 냄새였다. 눈은 온통 하얀 안개 속에 파묻혀 그야말로 꿈속에 있는 듯 했다.

"아,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아, 여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있는 구명을 메웠답니다. 그런데 화안아, 사람은 누가 만든 것이라고 했지? 기억나?"

화안은 대답하지 않고 엄마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여와는 호수가로 날아갔어요. 깨끗한 호수 면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춘 것을 보았어요. 새까맣고 반질반질한 긴 머리에, 우유빛갈 피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그녀는 호숫가에 앉아 진흙으로 수면에 비추었던 자신의 모습이랑 똑같이 인형을 빚었습니다."

"화안아, 왜 그래? 듣고 있는 거니? 듣지 않을 거면 엄마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화안은 계속해서 엄마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

"여와는 인형을 빚은 다음 인형의 코와 눈 가까이에 입을 가져가 부드럽게 후—"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여와의 품에 풍당 안기어 두 팔을 벌리고 여와의 목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여와가 만든 인형은 호수에 비친 자기 그림자와 똑 같았습니다."

"화안아, 뭐하고 있는 거야?"

꼬맹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하지도 않은 채 엄마의 눈동자를 만지려고 달려들었다. 엄마는 얼른 피했다.

"뭐하는 거야, 애기야?"

화안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마, 움직이지 마....."

화안은 손가락 두 개를 치켜들고 엄마의 눈꺼풀을 벌려보았다.

"뭐하는 건데?"

"보고 있지않아—" 화안은 뚫어지게 엄마의 눈을 드러다 보았다. 이어서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고 외쳤다.

"엄마, 엄마 눈, 눈에 화안이 있어. 진짜야....."

화안은 점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손가락을 펴고 엄마의 눈동자를 만지려고

했다.

“진짜야, 엄마, 양 쪽에 다 있어.....”

엄마는 웃었다. 아들의 눈동자에도 엄마의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고 생생하게 비쳐있었다. 마치 거울 같았다. 깨끗한 호수의 물 같았다. 엄마는 꼬맹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와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기억하기 쉬운 사람 ‘人’이라고.”

서양아이다!

화안은 등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세관 직원의 멋진 모자를 쳐다보느라고 이별에 아쉬워하는 아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짱구야." 아빠는 쪼그리고 앉아 커다란 손을 화안의 볼에 댔다.

"타이완에 갔다고 아빠를 잊으면 안 돼."

짱구는 아빠의 따뜻한 당부를 듣는 등 마는 등 독일어로 말했다.

"아빠, 화안 크면 청소아저씨하지 않고 공항 경찰 아저씨 할 거야. 그래도 돼?"

아빠는 모자가 손잡고 툅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두 사람의 가너린 등에 다려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느새 인파 속에 사라져버렸다.

기내에 들어오자 화안은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본 사람처럼 알아서 안전벨트를 댔다. 아주 노련한 솜씨였다. 하지만 불과 몇 분이 지나자 또다시 세 살 짱구의 놀이를 시작했다. 의자 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대고 앞뒤좌우에 앉은 승객들과 까꿍놀이를 시작했다. 독일 승객들은 친절하게도 꼬맹이랑 놀아주었다.

"엄마, 저 독일 사람들도 다 타이완에 가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에 가고, 어떤 사람은 태국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 가. 이 중 일부분만 타이완에 갈 거야."

카라치에 도착하자 파키스탄과 인도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화안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는 쫑긋 서있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어?"

"파키스탄 사람들은 우르두어를 하고 인도 사람들은 힌디어를 해."

짱구는 의자에 서서 한참이나 관찰하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린 듯 말했다.

"저 사람들 좀 까매. 엄마."

"맞아. 여기는 더워서 해님이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

"또 있어. 엄마, 진흙도 좀 검을 거야."

"무슨 진흙?" 엄마는 알아듣지 못했다.

"진흙 말이야!" 화안은 손으로 무언가를 빚고 있는 시늉을 했다.

"여와님이 저 사람들을 만들 때 좀 까만 진흙을 사용했나봐. 그렇지?"

방콕에 도착하자 까만 머리에 까만 눈의 승객들이 줄줄이 올라탔다. 5살 정도 되는 태국 여자애도 올라탔다. 머리를 나비 모양으로 예쁘게 땀았다. 우리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화안과 마주보고 있었다.

여자애가 뭐라고 말하자 화안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 뭐라고 하는 거야? 중국 사람이 아니야?"

"응, 아니야. 태국사람이야. 금방 태국말을 했어."

"왜?" 화안은 여자애를 쳐다보며 말했다.

"왜 아니야? 근데 왜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많이 닮았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말과 당나귀도 많이 닮았잖아. 그래도 말은 말, 당나귀는 당나귀잖아. 그치?"

"응!" 화안은 엄마 말에 동의했다.

"파리하고 꿀벌도 비슷해, 그리고 또.....또 늑대와 세퍼드도 비슷해, 그리고 또 백로와 학도 닮았어, 그리고 또....."

마닐라에서 탑승한 사람이 특별히 많았다. 저마다 가방을 손에도 들고 어깨에 메고 등에도 짊어졌다. 우각, 밀짚모자, 바구니, 술 담배 등이 보였다. 모두가 흥분된 기색으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대화하고 있었다.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백화점 분위기로 바뀌었다.

"저기, 그 XO는 얼마주고 샀어?"

"50달러, 당신 것은?"

"뭐?! 난 공항 면세점에서 샀는데 56위안에 샀어. 속았네, 에구, 죽어야지!"

"저기요, 아가씨, 이거 영어로 되어있네요. 난 쓸 줄 모르는 데 어떡하지?"

"네 장여사님, 괜찮습니다. 여권을 주세요.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저기, 내 우각 누르면 안돼요....."

화안은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대고 눈이 동그라졌다. 깜빡도 하지도 않고 시골

벽쩍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신기한지 넋을 놓고 있었다.

화안은 정신을 되돌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중국어를 하고 있어. 저 사람들 다 중국사람이야?"

엄마는 웃었다. 지금 꼬맹이가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화안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의 엄마였다. 화안의 세계에서 중국어는 "엄마의 언어"였다. 이 세상에 있는 엄마 외의 모든 사람들—유치원 친구들, 아이스크림을 파는 똥똥이, 길 건너편 자주 초콜릿을 주는 카우프만부인, 집에 찾아오는 우체부 아저씨, 뽀뽀이 페인트아저씨, 검정색 유니폼에 연통 청소하는 아저씨, 그리고 화안을 등에 태우고 말이 되어주는 아빠—모든 사람들이 독일어로 말했다.

그런데, 왜 이 비행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모두가 '엄마의 언어'를 하는 건가?

화안은 너무나 신기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를 희열에 젖어있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화안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금의 화안은 어느 날 갑자기 꽃밭에서 산책하고 있는 학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왕과 같은 기분일 것이다.

"서양아이구나, 너무 귀여워!" 한 여인이 호들갑떨며 말했다. 그러자 몇몇 여인도 다가와 어리둥절한 꼬맹이를 둘러쌌다.

"What is your name?"

"Where do you come from?"

여인들은 앞다투어 영어로 말을 건넸다.

이번에 화안은 정말로 어쩔줄 몰라했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나하고 영어로 말해?" 화안의 질문 속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여자는 또 다시 놀라며 호들갑 떨었다.

"와! 너 중국어 하는구나. 중국 꼬맹이었구나! 짱이야....."

그래도 체념하지 못하고 기어이 영어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What's your name?"

화안은 드디어 정신을 되찾고 말했다.

"이모, 저 영어 못해요, 독일어 밖에 못해요. 독일어 알아요?"

타우웬(桃園)시에는 아주 긴 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거리 중간에는 큰 절이 있었다. 앞쪽은 '절앞', 뒤쪽은 '절뒤'라고 했다. 외숙모는 손님인 엄마에게 절앞과 절뒤에 가면 애들 옷을 살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화안은 시름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룡싱은 왜 엄마보고 '고모'라고 하고 나는 룡싱의 엄마보고 '외숙모'라고 해야돼? 그리고 왜 룡싱은 할머니보고 '할머니'라 하고 나는 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불러? 왜 룡싱의 아빠는 '외삼촌'이야? 왜 추거는 '외삼촌'이고 인디는 '삼촌'이야? 왜 어제 그 똥보 아저씨는 "큰 아버지'야? 왜?"

"첫—, 조용" 엄마는 황급히 화안의 질문을 잘랐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끌어보려 했다.

"택시 왔어. 먼저 절뒤에 가보자."

절뒤에는 옷가게들이 엄청 많았다. 가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거리에도 옷들로 가득했다. 화안은 신나게 옷 사이로 뛰어다니며 놀았다.

"야, 아위, 얼른 나와 봐, 여기 서양 아이가 와있어!" 가게를 지키던 여자애가 큰 소리로 불렀다. 어느새 화안은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화안의 머리를 만져보는 사람도 있었고 손을 잡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눈이 정말 예뻐! What's your name?"

엄마가 화안을 구하러 다가갔다. 여자들은 놀라며

"와! 혼혈이구나!"

엄마도 포위되었다.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애 아빠는 잘 생겼어요? 키는 얼마나 커요?"

"아빠는 왜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하세요?"

"결혼한지 얼마 되었어요? 애는 몇 명이예요?"

"애가 왜 엄마를 닮지 않았죠?"

이번에는 똥똥한 사장이 밖으로 나왔다. 여자들이 자리를 내 주었다.

"아들이세요?" 여 사장이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그럴 리가. 아들 녀석은 이렇게 잘 생겼는데?” 여 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가게를 나온 엄마는 화안의 손을 꼭 잡고 택시를 향해 손을 저었다. 화안은 불만이 가득해 항의했다.

“집에 안갈 거야. 외숙모가 절앞도 있다고 했어. 거기도 가볼래. 엄마도 간다고 했어!”

“귀여운 서양 애야—” 엄마는 뽀뽀하고 있는 꼬맹이를 안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미칠 것 같아!”

어린이집 찾기

다섯 살내기 사촌 형이 세 살 반되는 사촌 동생에게 말했다.

“흰색 경찰차는 내가 가질 거야!”

사촌 동생은 손을 놓지 않고 씩씩거리며 말했다.

“Nein, Nein, das gehört mir!”

“너 아까부터 많이 놀았잖아!” 사촌 형은 기분이 언짢았다.

“Du hast auch ein Auto” 사촌 동생도 기분이 언짢았다.

엄마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신문을 내려놓고 두 사촌형제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화안이 독일어로 사촌형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와는 모두 중국어로 말하는데 말이다.

그 날은 화안이 타이완에 도착한 첫날이었다. 엄마는 이틀 동안 더 관찰한 후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독일에서 화안은 매일 어린이집에 갔다. 화안의 세상에서 모든 꼬맹이 들은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다. 독일어는 곧 모래 웅덩이이고 그네이고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싸울 때 사용하는 언어였다. 사촌형도 같은 꼬맹이였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화안은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화안의 머리를 빗어주며 말했다.

“오늘 엄마랑 어린이집 보러가자.”

화안은 조금 긴장한듯했다.

“독일 어린이집이랑 같아요?”

“글쎄—”

엄마는 잠시 망설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자신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어요....."와 같은 몇 마디 가사뿐이었다. 지금도 애들이 '자리에 앉아서'를 하고 있을까?

엄마는 화안의 손을 잡고 서있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엄마는 건너갈 틈을 기다리느라 눈앞이 아찔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에는 땀이 질퍽했다. 엄마는 길옆에서 한참 동안 서있었다. 어린이집 복장을 입은 꼬맹이 한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다. 엄마도 드디어 용기를 내어 건너갔다.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반으로 안내했다. 교실은 타이완의 전형적인 "교실"구조였다. 네모반듯한 교실에 네모반듯한 창문과 문이 달려있었다. "교실"의 배치도 엄마가 타이완에서 자라며 너무나 익숙해 있던 배치로 되어있었다. 앞쪽에는 칠판이 걸려있고 그 앞에는 책걸상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자그마한 교실은 꼬맹이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선생님은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직도 '자리에 앉아서'를 하는 구나. 4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다. 독일의 어린이 집은 교실이 "교실"보다는 오히려 가정집 같았다. 한쪽 구석은 소꿉놀이하는 장소로 꾸며졌다. 인형의 침대며 옷장이며 주방 세트며 책상 걸상 등이 놓여있었다. 다른 한쪽 구석에는 스펀지매트가 두껍게 깔려있어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고 테굴테굴 구르는 곳으로 꾸며져 있었다. 오른쪽에는 카펫이 깔려있어 아이들이 거기서 블록쌓기로 집을 짓거나 했다. 왼쪽 모퉁이에는 낮고 튼튼한 책상이 놓여있고 주위에는 어린이 의자가 놓여있었다. 애들은 이 책상위에서 종이오리기를 했다. 그 외에도 교실 곳곳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어린이집은 이른 아침 7시 반에 문을 연다. 꼬맹이들은 엄마 아빠의 동반 하에 하나둘씩 등원한다. 이렇게 일찍 오는 것은 대부분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많아졌다. 화안은 평소 9시 반이 되어야 어린이 집에 도착했다. 타이완 어린이들과 너무 비교가 됐다. 9시 반이 되자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도착했다. 모두 20명이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다들 뭘 하고 있을까? 제시카는 식탁에 앉아 엄마가 준비해준 빵과 치즈를 먹었다. 책상위에는 이미 우유와 주스가 놓여있었다. 다니엘

은 얼른 블록이 놓여있는 카펫위로 달려가 하루의 중요한 일과를 시작했다. 아레사는 캐럿부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가위로 종이 초롱을 만들고 있었다. 루이와 도로시는 한쪽에서 의사와 간호사 놀이를 하고 있었다. 도로시는 몸이 아픈 인형을 안고 있었다. 표정이 슬퍼 보였다. 레고놀이를 하고 있던 칼과 토마스는 서로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맞붙을 기세였다. 화안은 한 쪽 구석 서랍에서 퍼즐을 꺼내들었다. 오늘 아침은 퍼즐로 시작하려나 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미처 교실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에게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좀 붐비죠. 지금 이 영아반은 선생님이 40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일찍부터 애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어린이 집에 도착하면 거의 아침 8시 반 정도입니다." 원장은 주차장에 줄지어 세워진 키즈버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8시 반에 도착하면 무얼 하나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자유 활동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아도 됩니다. 9시부터는 수업 시작입니다—"

"수업요? 무슨 수업하세요?" 엄마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교실 안에 있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제대로 앉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선생님은 목이 쉬고 힘이 빠지도록 말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떠들고 몸을 들쭉거리고 있었다. 멍 때리는 아이도 있었다.

"저희는 글자 읽히는 수업도 있고 미술, 음악, 체육, 산수, 그리고 영어.....오전에 3시간, 수업 당 45분 진행됩니다."

이건 정규 초등학교잖아! 엄마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화안은 한번도 "조직"적인 단체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줄도 서본 적 없고 친구들과 가지런히 고개를 숙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본적도 없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고, "수업"해본적은 더욱 있을 리가 없었다. 화안이 다니던 어린이 집에서는 꼬맹이들이 벌떼처럼 여기 저기 몰려다녔다. 아이들은 블럭쌓기가 싫증나면 퍼즐을 하고, 퍼즐이 싫어지면 자동차놀이를 했다. 이방 저방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이 마치 꿀벌이 꽃밭에서 바빠 돌아다니는 것처럼 정해진 곳이 없었다.

단체활동을 아예 못해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구르기, 뽀뽀, 의자놀이를 함께 하기도 했다. 노래 시간에 아이들은 기타치고 있는 선생님을 둘러싸고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림시간에 아이마다 알록달록한 주머니를 다리에 끼고 책상 옆에 앉아 색칠하기도 한다. 독일의 어린이 집에서 하는 "단체활동"은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불과했다. 여기에 규칙과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화안은 아직 수업의 '시작'과 '끝'과 같은 시간 개념을 모릅니다—"

엄마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독일의 어린이집에서 애들은 오로지 놀기만 합니다."

한창 얘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영아반 꼬맹이들을 데리고 왔다. 몇몇 아이들은 신이나 문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원장님한테 저지되었다.

"안돼요! 운동장이 젖어있어요. 오늘은 밖에서 놀면 안돼요!"

선생님은 황급히 달려 나와 뛰쳐나온 꼬맹이들은 데려갔다. 통로 밖, 마흔 명의 꼬맹이들이 손을 잡고 두 줄로 서있었다. 한없이 부러운 눈길로 운동장 저편에서 미끄럼대를 타고 있는 화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안의 바지와 양말이 모두 젖어 있음을 엄마는 잘 알고 있었다.

"친구들, 손을 잘 잡아요. 자,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큰 소리로 지휘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는 놀라워하며 물었다.

"화장실예요." 원장님이 말했다.

"이렇게 화장실도 다 같이 가네요?" 엄마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네,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아 수업시간에 이사람 저사람 가다보면 관리가 안돼요. 그러다보니 한 시간에 한 번씩 선생님이 단체로 데리고 가요. 수업시간에는 가능한 친구들보고 참으라고 해요." 원장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 네!" 엄마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화안은 절대 지킬 수가 없었다. 목이 마르면 부엌에 달려가 물을 마시고, 급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해결하고, 피곤하면 구석에서 혼자 책을 보는 화안은 절대 이곳과 이곳의 시간, 행동준칙을 지킬 수 없었다.

엄마는 단념하고 "엘리트 어린이집"을 나섰다. 엄마는 진심으로 화안이 중국의 어린이집 교육을 받아보게 하고 싶었다. 언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싶었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화안에게 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 환경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규범이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세 살짜리 꼬마에게 필요한 것인지 엄마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외숙모는 엄마의 말을 듣고 위로했다.

"괜찮아! 타이완에도 서양식 어린이집이 있어. 네가 말한 독일의 어린이집과 비슷해. 그런데 비싸. 듣자하니 한 달에 평균 4천원(타이완 화폐)정도 한 대."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삼백 마르크요?"

화안이 다니는 어린이 집은 백 마르크다. 타이완의 평균소득은 서독의 이분의 일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터무니없이 비싼 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외숙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 살짜리 아이가 영어클래스, 엘리트피아노클래스, 문호작가클래스에 들어가려면.....외숙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화안과 엄마가 휴가나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외숙모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신화 · 미신 · 신앙

화안은 절 안에 들어섰다. 눈이 빛났다.

소리, 빛, 색채, 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도사의 손에 있는 방울이 "딸랑딸랑" 울렸다. 도사는 나지막한 소리로 곡을 부르며 신령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몸에 두른 붉은 색 장포는 눈부실 정도였다. 향안 앞에 너울너울 춤추는 양초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향이 간간히 타오르고 있었다. 파란색 불꽃이 맑은 방울소리를 뚫고 피어올랐다. 지붕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초롱이 달려있었다. 향불 연기가 초롱주위를 감쌌다.

통로 옆 걸채에는 빨간색 장포에 검정 모자를 쓴 도사가 침대위의 흰 옷을 향해 식을 올리고 있었다. 남자의 속옷이었다. 흰색이었다. 가족 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벽 쪽에 서서 도사가 방울을 흔들고 무가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곡하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도사는 작은 사발을 들고 흰 옷에 물을 뿜었다.

화안은 무서운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뭐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랐다.

다른 걸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뒤에 상투를 튼 나이 많은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젊은 엄마는 짜증난 얼굴로 그 옆에 서있었다. 도사는 손에 방울을 들고 아이의 머리위에서 계속 돌리고 있었다.

나이 많은 여자의 상투는 새까맣고 윤기가 나있었다. 그리고 노란색 백옥련이 꽃혀있었다. 무더운 7월에 아이는 두꺼운 담요로 퐁퐁 싸여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시뻘겋고 부어 있었다.

화안은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다.

"저 사람들 뭐하고 있어?"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화안은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이 컴컴해 졌다.

어둠은 철로 만든 대문짝 같았다. 문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문밖에는 햇빛이 눈부신 광장이 펼쳐져있었다. 분수가 거세게 하늘을 향해 치솟다가 갑자기 무너지듯 바닥에 쏟아졌다. 관광객들은 왜가리처럼 길게 목을 빼들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길로 구경하고 있었다. 야외 커피숍에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어른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끈적끈적한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었다. 금발의 여자애가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쳐고 있었다. 살찐 비둘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더니 바이올린케이스위에 내려앉았다. 바이올린 소리는 숲속을 흐르는 강물소리 같았다.

문안은 어두컴컴했다.

방문객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통로를 지나 유일하게 빛이 비추는 제단을 향했다. 햇빛은 알록달록한 유리를 뚫고 차가운 벤치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었다. 꼬맹이는 어둠속에 서서 고개를 들고 햇빛이 비추는 알록달록한 유리를 바라보며 색깔을 세고 있었다. 화안은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뒤를 보니 벽에 엄청 커다란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거무스레한 것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화안은 눈을 비볐다.

벽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실제 사람보다 훨씬 컸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혈뺨은 채로 허리에 천 조각만 두르고 있었다. 두 손을 벌리고 고개는 숙이고 있었다. 가슴은 온통 피투성이 되어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화안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화안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거 진짜야 가짜야?"

간간히 타고 있는 촛불 속에 엄마는 입을 열었다.

"원래 실존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은 나무로 만든 거야. 가짜란다."

"엄마," 꼬맹이는 엄마한테 딱 붙었다.

“우리 나가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놨어?”

엄마는 화안의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엄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철문을 나가자 햇볕이 쨍쨍 내리 쪼었다. 꼬맹이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났다. 분수대 쪽에서 바이올린 연주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아빠는 큰 손으로 화안에게 먹음직스럽게 커다란 솜사탕을 건네주었다. 핑크색 솜사탕이었다.

사실 엄마는 답을 알고 있었다.

헐 옷에 물을 뿜고 있던 도사는 “혼”을 부르고 있었다. 어촌 사람들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한다. 심오하고 신비한 바다는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혹한 죽음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바다는 이 모든 것에 책임질 의무도 없었다. 엄마는 어촌 모래사장에서 사람 다리 한쪽을 본적이 있다. 건강하고 가무잡잡했을 다리가 바닷물에 잠겨 하얗고 퉁퉁 붙어있었다.

그 다리가 누구의 다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집은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배만 돌아왔을 뿐이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한없이 슬픈 얼굴로 절에 있는 검정모자에 빨간색 장포를 두른 도사를 찾아갔다. 남편과 아들이 입었던 속옷을 품에 안고 찾아갔다.

얼굴이 온통 새빨개진 아이는 아마도 종일 밤낮없이 울어댔을 것이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 나 있었다. 헛바닥에는 백태가 가득 했을 것이다. 아니면 단지 몸을 감싼 담요가 너무 두껍고 뽁뽁 싸매서 숨이 막혀 그랬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할머니”는 애 몸에 귀신이 붙어 아이가 놀랐다고 생각했다. 절 안 금니를 한 도사는 아이의 넋을 달래주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주머니에 커다란 봉투를 넣어두었다. 식이 끝나면 도사가 애 엄마한테 향이 타고 남은 재를 주며 우유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벽에 걸려있던 가슴이 온통 피투성인 사람은 원래는 “실존”했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따뜻하고 힘 있는 손으로 아픈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결연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심판보다 중요하다’고

일깨웠다. 그는 자신의 피와 상처로 나약한 사람들에게 ‘때론 생명보다 희생이 더 소중하다’ 고 일깨워 주기도 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나무, 돌, 흙, 플라스틱으로 그의 조형을 만들어 도로 옆에 매달아 운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산 정상에 올려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어두운 벽에 걸어 참회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 살짜리 꼬맹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오색 돌로 하늘에 난 구멍을 메우고, 밭에 있는 호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금색이 반짝이는 마차로 변하고, 사람이 물속에 빠져 아름다운 수선화로 변신하는 것.....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화라고 칭한다.

방울을 흔들며 돌아다니는 영혼을 불러들이고, 경을 읽으며 마귀를 쫓아내고, 점대를 뽑아 길흉을 점치는 것을.....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한다.

마리아처녀가 임신하고 예수가 물위에서 걸으며, 장님이 눈을 뜨고, 무덤이 무너지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앙이라 부른다.

신화. 미신. 신앙.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자신도 헛갈렸기 때문이다.

화안은 햇빛아래에서 분홍 색 솜사탕을 빨고 있었다.

교회지붕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목에는 푸른 빛 털이 둘러있었다. 뒤통뒤통 화안의 발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사나이 대장부

화안은 엄마가 정기 검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는데 따라나섰다.

엄마는 치마로 갈아입고 진료대에 앉아 다리를 벌렸다. 의사선생님은 장갑을 끼고 도구를 꺼내들었다.

"엄마!, 나도 볼래." 화안이 문 옆에서 말했다.

의사선생님은 엄마를 힐끔 쳐다보고 물었다. "괜찮을까요?"

엄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괜찮아요. 화안아, 들어와도 돼, 대신 기기를 만지면 안 돼."

화안은 의사선생님의 옆에 서서 새로운 시각에서 엄마를 보고 있었다.

"의사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화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가 머리를 만져보고 있어. 제대로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엄마는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가가 나오면 화안이랑 자동차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선생님, 지금 뭐 만지고 있어요?"

주치의선생님은 상냥한 눈길로 화안을 쳐다보며 웃었다.

"자궁! 자궁은 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잠자는 곳이야, 너도 예전에 안에서 잤었어."

"선생님, 자궁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전등이야, 자, 엄마 배 속이 어두워 안보이지, 내가 전등을 비추면 안이 보일거야."

엄마는 비스듬히 누워 의사선생님과 꼬맹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화안이 즐겨보는 《인체의 비밀》이란 책이 생각났다. 화안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음식이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는 입이야. 그리고 흘러내려, 여기는 식도야, 이곳에서 섞여져, 시큼한 냄새가 나. 여기는 위. 여기는...어우! 냄새! 여기는 대장이야. 안에서 뒤섞여서 응가가 되었어! 나왔다!"

오늘 화안은 또 한 번의 인체비밀 체험수업을 받은 셈이다.

의사선생님은 풀같이 찢뜩찢뜩한 물건을 엄마의 배에 발랐다. 그리고 무언가로 미끌미끌한 배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자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보였다.

의사선생님께서 태아의 머리 사이즈를 재고 있었다.

"선생님,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보이세요?" 엄마가 물었다.

의사선생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단지 아이입에 틀림없고 머리는 두 개가 아닌 하나, 발도 여섯 개가 아닌 두 개라는 것만 보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꼭 알고 싶으세요?"

엄마는 개의치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잘 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초음파를 껐다.

"인간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느님에게 약간의 비밀을 남겨두고 자연에게 약간의 의문을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조금 놀라워하며 앞에 서있는 명성이 아주 높다는 이 독일 의사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흰 정도에 나이에 검은 색 곱슬머리 밑으로 유난히 부드러운 눈빛이 보였다.

"매일 비티만 챙겨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의사선생님은 당부하며 검진기록을 적고 있었다.

"선생님, 엄마가 의사선생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낙태수술도 해주십니까?"

선생님은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절대로요."

"왜요?" 엄마는 꼬치꼬치 캐묻는 습관이 있었다.

"저는 낳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으로 맞이하는 것만 말아합니다. 저는 그 어떤 생명도 끊어놓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럼 혹시....." 엄마는 망설이며 물었다.

"제가 출산을 하고나면 절육수술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사선생님의 상냥한 눈이 웃고 있었다.

"만약 꼭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안드레아스 어

머니, 아마도 저는 오후 시간을 꼬박 써가며 어머니가 절육수술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왜요? 저는 애 두 명만 원합니다. 둘째를 낳고 나면 저도 서른여덟입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왜 수술을 해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엄마는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엄마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타이안병원을 떠올렸다. 화안을 임신하고 찾아갔을 때 간호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출산하면 바로 절육수술도 같이 할 것인지 물었었다.

“왜내하면.....” 의사선생님은 환자들로 바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절육수술은 한번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루프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가 정관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구요.....”

“산모님과 같은 여성은...” 의사선생님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몇 명 더 낳지 않으세요?”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저저저요—금년에 벌써 서른여덟입니다—”

“서른여덟이 어때서요!” 의사선생님은 진지했다.

“우리 산모님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않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지혜도 있구요.....산모님과 같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하여튼!” 의사선생님은 심오한 표정으로 말했다.

“산모님과 같은 엘리트여성들이 가장 골치 아파요!”

“선생님은 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엄마도 지려하지 않고 끝까지 물었다.

의사선생님은 웃으며 “다섯입니다!”라고 했다.

“네!” 엄마는 할 말이 없었다.

햇살이 따듯한 오후시간, 엄마는 몇몇 아낙네들과 에리카네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에리카의 아들은 대학원생이었다. 주말에 집에 오면 산타할아버지

처럼 커다란 주머니에 빨 옷들을 가득 가져와서 엄마한테 던져줬다. 에리카는 아들이 리포트를 쓰다가 막히면 이웃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이웃에는 경제학 박사며, 심리학 박사며, 의학 박사며 문학박사까지 끌고루 살고 있었다.

"남자보고 정관수술을 하라고?" 에리카는 커피 잔을 엮을뻔했다.

"예전에 내가 알리지반응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없어 루프를 했는데 염증이 계속 생겨 어쩔 수 없이 남편보고 정관수술을 하라고 부탁했었어. 승낙했을 거 같아?"

아낙네들은 모두 눈이 휘둥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싫대요?"

에리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못한대요!"

하이디도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우리 집 양반도 싫대요."

수잔이 나서 결론을 내렸다.

"남자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로 스스로를 확인해주려는 거죠."

아낙네들은 커피 한 모금씩 마시고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탁, 엄마는 아빠한테 각별히 정성을 다하는 듯 했다. 화이트와인과 참새우를 준비했다. 그리고 화안이 아빠 어깨에 기대어 밥 먹지 못하도록 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빠가 일어서려고 할 때 엄마는 아빠를 도로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엄숙하게 말했다.

"앉아 봐요. 의논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아빠의 안색도 변했다. 아빠는 엄마의 표정만 보아도 또 뭔가 재난이 닥칠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의사선생님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는 오후 내내 준비했던 설득에 나섰다.

"그러니깐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가 정관수술을 하는 거래요."

아빠는 잔뜩 상기된 표정을 풀며 말했다.

"알았어, 갈께!"

"남자들 수술은 아주 간단해요. 몇 분이면 끝나고요. 아프지도 않고....."

엄마는 계속해서 준비한 멘트를 읊었다.

"알았어, 가서 수술하지!"

"그리고 남자한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대요. 심리적으로 부담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요. 당신은 자신감 충만한 남자니깐....."

엄마는 말을 멈추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슨 대단한 일인가 했네! 가서 수술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는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제치고 화안이랑 놀아주러 거실로 갔다. 거실에는 부자가 치고받으며 노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멍해있었다.

점점 멀어지다

따분한 오후 시간, 화안은 엄마한테 자기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다.

엄마는 흔쾌히 대답했다. 화안이 어려서 젓 먹을 때 전쟁이 따로 없었어. 작은 손으로 엄마 젓을 잡고 입은 죽을 힘을 다해 빨았어. 엄마 가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 손을 놓으면 바다에 떨어질 가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일본도 채 되지 않아 한쪽을 다 빨아먹고 다른 쪽을 빨기 시작했어.....

그때 화안은 하루 종일 엄마 품에 매달려 있었어.

그리고요?

그리고 화안은 기여 다니게 되었어. 엄마가 다니는 곳마다 화안도 이방 지방 쫓아서 기여 다녔어. 강아지처럼.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바로 울음을 터트렸어.

그리고요?

그리고, 화안은 걷기 시작했어. 매일 엄마 손을 잡고 문밖에 나가 길 건너 맞은편에 사는 프레디한테로 가서 놀자고 즐랐어.

초인종이 울렸다. 한쪽에서 자동차 놀이 중이던 화페이가 현관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페이페이가 열꺼야, 페이페이가 열꺼야!"

여섯 살의 프레디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화안, 얼른 나와, 우리 엄마가 마당에서 개미굴을 발견했어....."

"개미? 그래?" 페이페이의 눈이 동그라졌다.

프레디와 화안은 이미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두 사람 모두 맨발이었다. 엄마는 황급히 소리쳤다.

"길 건널 때 양쪽을 잘 확인하고".

거의 세살인 페이페이도 길을 건느려했다. 뒤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멈춰!"

페이페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 없어?"

페이페이는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핀 후 말했다.

"없어."

"뛰어!"

곱슬머리 꼬맹이는 고무공처럼 퐁퐁 어느새 길 건너편에 가 있었다.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바나나 케이크를 구울 계획이다. 밤나무의 파란 잎이 팔랑팔랑 유리창에 닿았다.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나무가 훌쩍 자라버렸다. 갓 이사 왔을 때엔 창문보다도 낮았다. 따스한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 책상 위에 나뭇잎 그림자를 남겼다. 바나나 세 개, 밀가루 두 컵, 계란 하나.....

그리고 화안은 혼자서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 길은 일방통행로라 차가 많지 않았다. 삼십분마다 큰 버스가 뽕뽕거리며 지나갔다. 페이페이는 버스가 뽕뽕 달리는 소리를 좋아했다. 한번은 엄마가 주방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버스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 짹- " 하고 멈춰섰다. 바로 부엌 밖에서 멈추는 소리였다. 엄마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신문 한 줄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팔짝뛰며 문밖으로 튀어나갔다. 예상대로 한 살 반밖에 안 되는, 강아지보다도 키가 작은 페이페이가 거리 한복판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있었다. 젓병을 들고 꿀꺽꿀꺽 마시며 두 눈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화안이 어린이 집을 졸업한지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 화안과 프레디가 어깨동무를 하고 엄마 앞에 나타났다.

"엄마, 우리끼리 놀이터에 가도 돼요?"

엄마는 망설였다. 모래장과 미끄럼대가 있는 놀이터는 집에서 고작 400m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다. 엄마의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성 변태 남성이 어린 남자애와 여자애를 성추행한 후 죽여서 시체를 버리거나, 수배범이 어린애를 납치해 인질을 죽이거나, 또는 도망친 개가 사람을 물어 내장을 물어뜯거나, 여름철 말벌이 사람을 쏘아 죽게 하거나.....

"엄마, 돼요? 안 돼요?"

두 딱친구는 좀 짜증이 난 표정으로 망설이고 있는 이 여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화안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엄마는 화안과 마주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당부했다.

"뒤쪽 인도로만 가야한다는 걸 알고 있지?"

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무데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네, 알아요." 목소리가 쨍쨍했다.

"사탕을 쥐도 안가요."

"만약에" 엄마는 계속해서 물었다.

"만약 그 사람이 토끼를 보여준다고 하면?"

화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안가요."

엄마는 일어서서 꼬맹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가서 놀고 와!"

두 꼬맹이는 머리 사냥 나가는 원시인들처럼 썩하고 나가버렸다.

그 이후로 화안은 세상 어디든 안가는 곳이 없는 선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놀이터 옆에는 넓은 초원이 있는데 풀 밑은 마멋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초원에는 이름 모를 고목 한그루 있는데 나무 가지에는 언제나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앉아 하늘을 향해 "각각" 울어대요. 숲속에는 토끼들이 뛰어다니는데 커다란 귀, 찌리몽땅한 꼬리에 몸통은 살이 피둥 피둥 찢어요. 그중 한 마리는 아홉 근이나 되어 고양이만해요. 그네 옆에 자란 나무에는 녹색 콩들이 가득해요. 콩에는 잠자리 날개처럼 생긴 얇은 콩 꼬투리가 달려있는데 콩을 공중에 던지면 "날개"가 빙빙 돌아가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착륙하는 헬리콥터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해요.....

"엄마,"

화안이 이른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엄마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어린이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피식 웃었다.

"화안은 이미 졸업했는데 어린이 집에 갈 거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초등학교에 가야돼."

화안은 때를 쓰며 기어이 가자고 했다.

엄마는 머리가 부수수하고 얼굴도 씻지 않은 채 잠옷차림에 턱을 괴고 아들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이갓! 꼬맹이가 아직 '졸업'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십분 후 엄마와 화안은 어린이집 문 앞에 와 있었다. 화안은 눈에서 빛이 났다. 이곳에는 화안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익숙한 장난감, 놀이 공간, 냄새.....모든 것이 있었다.

화안이 문을 밀어채끼더니 그 곳에 굳어버렸다. 안에서 북적거리며 놀고 있던 꼬마친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에 서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화안은 엄마 손을 잡으며 혼란스러워 했다.

"내 친구들은?"

익숙한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내 친국들은?"

화안은 당황스러워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뒷걸음치며 문밖으로 물러섰다.

"화안의 친구들은....." 엄마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화안처럼 다 커서 어린이 집에서 졸업했어. 초등학교에 갈 거니깐."

화안은 고개를 숙이고 발끝으로 바닥을 찼다.

"친구들이 다시 안와?"

"다시 오지 않아. 어린이 집 시절은 이미 끝났어....."

꼬맹이는 멍해 서있었다. 어디선가 기타연주소리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화안은 엄마의 손을 놓더니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대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엄마, 가요!"

바로 그해의 슬픈 여름 방학에, 화안이 지하실에 있던 베자루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고 있었다. 화안과 프레디는 경찰이 되어 전신

무장을 하였다. 나뭇가지로 만든 권총을 허리에 차고 밧줄과 키는 어깨에 걸쳤다. 프레디의 세살 반 되는 여동생은 도둑이었다. 두 손이 마구 묶여있었다. 그리고 두살 반 되는 페이페이는 경찰견이 되어 열심히 바닥에서 기고 있었다.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둘렀다.

도둑을 잡아줘야 했다. 경찰관이 감옥 문을 열자마자 구석에 놓여있던 주머니가 화안의 눈에 들어왔다.

"다 거짓말쟁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거짓말쟁이야!"

화안은 얼굴이 시뻘개서 격분해하며 소리 질렀다.

"산타할아버지의 수염, 옷, 모자, 그리고 탈.....다 안에 있잖아. 화안이 다 봤어. 다 봤다고!"

엄마와 아빠는 멍해 있다가 마주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날이 되니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아빠는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았다. 이날은 주말이라 아빠가 자청해 요리하는 날이었다. 아빠는 앉으며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는 말했다.

"안드레아스, 잘 들어, 아빠도 너만 할 때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산타할아버지 물건들을 발견했어. 그래 맞아, 해마나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 정원에 나타났던 사람은 니콜라스 본인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속이지 않았어—"

화안은 고집스레 얼굴을 한쪽으로 돌렸다. 아빠의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말 속이지 않았어. 왜냐면, 아주 오랜 전에 니콜라스는 이렇게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늙어서 눈 속에서 먼 길을 걸어 찾아 올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산타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거야. 이래도 속인거야?"

화안은 차츰 조용해졌다.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른 페이페이가 "멍멍멍"하며 짹짹 부엌으로 뛰어들어 왔다. 화안은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더니 아빠 무릎에서 뛰어내렸다.

"내가 할아버지 물건을 숨겨놓을게요. 동생이 보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무렵, 화안과 프레디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그림책을 보고 있었

다. 녹음기에서는 화안이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신은 그대 손으로 대지를 어루만지고, 봄풀은 푸르디 푸르러.....

화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레디, 그거 알아?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내 생각에는 나도 믿지 않는 거 같아—”프레디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두 꼬맹이는 조용해졌다.

엄마는 문밖에서 멀어져 갔다.

개학식이 끝나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메고 교실 앞에서 시끌벅적 거리며 비뚤비뚤 두 줄로 섰다. 어린이 집에서 사라졌던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보였다. 화안과 친구 크리스틴은 손을 꼭 잡고 흥분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렸다. 엄마, 아빠, 그리고 곱슬머리 페이페이는 학부모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더니 분주해졌다. 선생님은 암탉처럼 줄의 가장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길을 열어주었다. 일학년 을반의 스물 명의 학생들은 손을 잡고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엄마의 두 눈은 화안만 쳐다보고 있었다. 화안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새 책가방에 달아놓은 각양각색의 공룡도 같이 움직였다. 화안은 아직은 너무도 마르고 작아보였다. 얼굴에는 젓 먹을 때 얘기 모습이 그대로였다. 화안과 공룡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점점 어두운 문 안쪽으로 모습을 감췄다.

화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의 시선은 여전히 그 깊이와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의 눈앞이 흐려졌다.

《수호지》를 읽는 꼬마

《서유기》100회를 다 읽은 후, 엄마는 《수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똥똥이 승려 노지심은 술과 개고기를 좋아하고 걸핏하면 꽤거리싸움을 했습니다.” 화안은 깔깔대고 웃어댔다.

“잘 때면 코고는 소리가 우뢰같았고 한밤중에 일어나 불당에 대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화안은 자기 코를 잡으며 말했다.

“냄새!”

화안의 깔깔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이 책 읽다가 괜히 애 교육 망치는 건 아닌지? 그래도 일단 읽어는 보자”라고 생각했다.

“노지심은 한밤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절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절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노지심은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북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두드리다가 몸을 틀어 문 옆에 세워진 금강역사를 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놈, 얼른 문 열지 못해?’ 노지심은 달려들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역사의 팔을 부러뜨린 후 그 부러진 팔로 금강역사의 다리를 후려치자 조각과 도색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안은 눈이 동그래져 이야기에 빠져있었다. 엄마는 속으로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파사구1)(破四舊)’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지심이 건달 두 명을 똥간으로 한방에 날려버린 장면이 나오자 화안은 침대에 엎드린 채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웃음이 터졌다.

“소화산에 산적 세 명이 칠백 명의 줄개를 거느리고 화적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화적질이 뭐야?”

1) 문화혁명 당시 파사구(破四舊: 구사상, 구문화, 구풍습, 구습관) 타파운동

“화적질은 집집마다 다니며 물건을 빼앗으며 강도질 하는 거야.”

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 강도 중 한명은, 아니 세 영웅이라 해야지. 한명은 신기군사 주무인데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두 번째 강도, 아니, 두 번째 영웅은 질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영웅은 대간도를 쓰는 양춘이였습니다. 세 영웅은 산속에서 살면서 돈이 필요해지면 산에서 내려와 강도질을 했습니다. 이충과 주통 알지? 그들은 병기를 들고 길목에 나타나 ‘여보게, 살고 싶으면 가진 것을 내 놓으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칼을 들고 맞서 싸운 사람도 있었지만 칼을 열 몇 번 주고 받는 동안 줄개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나가던 사람들을 반 넘게 죽여 버리고 수레와 재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영웅들은 노래를 부르며 서서히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안은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송강과 파석의 이야기가 나오던 그날 밤, 엄마는 말을 더듬거리며 긴장해졌다.

“파석은 편지를 돌려줄 수는 있으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내가 새로 시집을 가도 된다고 종이에 적어줘야 해요.”

엄마는 여섯 살 되는 아들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한 것은 아니야. 이혼서류와 같은 거니깐. 두 사람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뿐이란다.”

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머리에 꽂고 있는 것이며 몸에 두른 것,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당신이 장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종이에 써줘요.”

엄마는 “이것도 과분한 조건은 아니야”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자산은 당연히 부부 공동의 것이니 헤어질 때 반반씩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화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에 동의했다.

“나와 동생도 그래”

“세 번째 조건은 양산박에서 보내온 금 백냥을 모두 나에게 주세요, 이걸 좀

욕심이 과했어, 화안이 보기에 그렇지?”

화안은 몹시 격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탐욕스러운 여자야!”

“송강이 이불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파석이 기어코 못하게 하자 두 사람은 이불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송강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석은 칼을 보자 ‘송강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할 때 송강은 그만—”

엄마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책만 쳐다보고 있었다— “왼손으로 여인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목에 칼을 찔렀습니다. 시뻘건 피가 뿜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고향지르고 있었습니다. 송강은 여인이 죽지 않을 까봐 칼로 한 번 더 베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머리가 힘없이 베개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

“그것이 말이지, 음—송강은 화김에 파석을 죽여버렸답니다.” 엄마는 황급히 책을 덮었다.

“그래서 관가에서 송강을 잡으려고 하자 송강은 양산박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잘 시간이야, 잘 자!”

“엄마, 송강도 영웅이야?” 불이 꺼져있는 어둠 속에서 화안은 계속해서 질문했다.

엄마는 화안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며 이마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웅이 아니야, 영웅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잘 자!”

“양산박의 백 여덟 명은 모두 영웅인데!” 화안은 납득이 되지 않은 듯 이불을 찼다.

“제발 자자—”엄마는 애써 달래며 말했다.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가 말한 내일이 눈 깜빡 할 새도 다시 찾아 왔다. 엄마는 침대머리에 앉아 다음 단락을 들여다보며 멍해있었다.

“여인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눈치 채고 소리 지르려고 했지만 무송에게 잡혀

바닥에 쓰러뜨려졌습니다. 무송은 두 발로 그녀의 양쪽 팔을 밟고 그녀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칼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베고는 다시 칼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가슴을 벌려 심장, 간장 등 오장을 꺼내 영전에 받쳤습니다. 이어서 단칼에 여인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바닥이 온통 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반금련이 무대를 죽여서 무송은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반금련을 죽이고 산속으로 도망가 강도, 아니, 영웅이 되었어. 자, 우리 28회로 넘어가 볼까?”

“무송이 간혀 있을 때, 어떤 간수가 있었는데 매일 무송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래 그자는 쾌활림에서 주점을 해 왔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즐겨로 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에서 공돈이 굴러왔고 월 말에는 은 이삼백 냥 정도 이윤이 있었지요.....”

엄마는 속으로 “지역 깡패와 조폭들이 관리비를 갈취하는 거랑 똑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주점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문신이라는 몸집도 아주 크고 무예도 자기보다 뛰어난 놈이 나타나 주점의 장소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간수는 무송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젠 알겠지? 간수가 왜 매일 술과 고기를 가져다주었는지.”엄마는 이야기하며 화안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화안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무송이 싸우러 간 거야? 싸웠어?”

“무송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장가네 주점에 찾아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장문신을 죽도록 뺏습니다.....”

“안 돼!” 엄마는 갑자기 책을 덮더니 단호하게 일어섰다.

“화안아, 무송은 정말로 덩치만 크고 머리가 없는 깡패야. 영웅이 아니야. 《수호지》는 더 이상 읽지 말자. 다른 책으로 바꾸자! 바꿔버리자!”

화안이 애타게 부탁했지만 엄마는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는 누군가에 화가 난 사람처럼 불을 끄고 화안의 방에서 나왔다.

엄마는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며칠저녁이나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시간, 엄마는 이층 서재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다. 귀가에서는 아이들이 창밖에서 떠들어 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갑자기 엄마가 필을 멈췄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노인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안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다.

한참 후, 또다시 애들과 지나가는 노인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자 엄마는 궁금해졌다. 엄마는 창문에 엮드려 몸을 절반 창밖으로 내밀어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여섯 살 화안과 맞은편에 사는 프레디가 저마다 손에 대나무와 천조각으로 만든 기발을 들고 인도 양쪽에 서 있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분이 비칠비칠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두 꼬맹이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깃발을 교차시켜 세웠다. 화안이 쩡쩡한 독일어로 소리쳤다.

"어이, 여보게, 지나가려거든 돈을 내놓으시오! 우리 형제들이 여비가 필요하네!"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시퍼런 대낮에 날강도를 만났구려! 난 돈은 없어도 초콜릿은 있는데 안 될까? 제발 놓아 주시게나!"

두 영웅의 눈이 반짝거렸다. 할머니가 가녀리고 주름이 가득한 손을 바구니 속으로 넣었다.

"좋아요, 놓아 줄게요!"

화안이 위풍당당하게 명령을 내렸다. 두 꼬맹이는 기발을 치우고 길을 열어주었다.

길 한쪽에는 양노원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슈퍼가 있었다. 화안은 노인들만 골라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다.

두 강도가 다음 노인을 노리기전에 엄마는 맨발바람에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왔다. 문밖으로 튀어나온 엄마가 화가 치밀어 한바탕 혼내주려고 하는데 화안이 해맑은 얼굴로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손에는 기발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다.

"엄마, 엄마—이거 봐. 우리 초콜릿을 가득 빼앗았어. 프레디도 공이 있어....."

쥐 한 마리

일요일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잠옷 차림에 커피를 마시며 위에 펼쳐 놓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더—더—멍"

화안은 엄마 옆에 붙어 신문 위 글자를 가리키며 읽고 있었다.

"더—멍—스—스—"

"화안아, 화안이 앞을 가려서 신문이 보이지 않아!"

엄마는 화안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엄마."

화안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글자에서 두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 더—멍—스—트라—트라—슉이 뭐야?"

"아~ ! Demonstration"

"시위행진이란 뜻이야."

"엄마가 조용히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카—카—피—토토—라—라"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안의 손짓과 시선이 다른 기사로 옮겨갔다. 그리고 화안은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

"카피투라—라슉—이거 뭐야?"

"Ka-pi-tu-la-tion,"

"투항, 항복한다는 뜻이야."엄마가 말했다.

"거—거—페이—"

화안이 다 읽기도 전에 엄마는 신문을 빼앗아 화장실로 숨어버렸다.

화안이 요즘 새로 시작한 놀이방식이였다. 올해 8월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밥상에 앉으면 식탁위에 놓여 있는 주스케이스 위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리고는 적혀 있는 글자들을 뜨뎁뜨뎁 한 음절 한 음절씩 또박또박 발음해본다..

"오—룬—징—사—푸—트—아, 오렌지 주스."거리에 나가면 몸집이 커다란 버스를 유심히 쳐다본다. "구—두—모—건—아—, 아하! 굿모닝!"화안이 버스에 뭐라고 적혔는지 알게 된 것이다.

집에 손님이 왔다. 화안은 손님의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투—비—스—"

손님이 몸을 돌리자 화안도 방향을 바꿔 쪼르르 손님 앞으로 달려갔다.

"투—비—스—투—부—"

화안은 배를 안고 깔깔거렸다. 아예 바닥에서 구르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투비스투부, 당신은 멍청이 바보! 투비스투부....."

화안은 무척 즐거워했다. 마치 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었다. 엄마는 당나귀처럼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꼬맹이를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유치원에서 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동년시절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한 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스물 명의 아이들에게 ABCD부터 문자를 가르치면 그 중 먼저 글을 익힌 몇 명은 수업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재잘재잘 가득찬 호기심으로 글의 세계를 탐색하는데 폭 빠져있다.

《에코노미스트》시사 주간지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본 엄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학년 학생들이 매주 숙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정도 일까요? 미국 1.8시간, 일본 3.7시간, 타이완 8시간.

엄마는 속으로 "오마이갓!"을 외쳤다. 그리고 화안이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화안의 알록달록하고 네모각진 커다란 가방에는 늘 공책 한권과 필기구만 들어있었다.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다녔다. 선생님이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셨단다. 하루 숙제는 종이 한 장 분량이었다. 종이위에 네 줄로 글을 쓰는 것이 숙제였다. 굵은 크레용으로 문자 하나를 거위 알 만하게 썼다. 당나귀라는 뜻의 ESEL를 쓴다고 치면 종이 한 장에 네 줄 써도 많아야 알파벳이 열여섯 개였다.

화안은 30분도 안 걸려 숙제를 마칠 수 있었다. 의자위에 올라가 흔들흔들 춤을 추고, 책상을 차고, 의자를 차고, 공책에 자동차 한 대와 강아지 두 마리를 그

리고, 아니면 연필장난하고, 종이 접기하고, 밖에서 따온 밤을 세는 등 판청을 부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화안이 온전히 숙제하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에 많아야 고작 30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주일에 닷새로 계산해 모두 150분, 2.5시간이었다. 미국 보다 좀 많은 시간이긴 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고 화안은 오전 11시 반이면 수업이 끝났다.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노는 시간이었다. 마음껏 놀고, 즐겁게 놀고, 질릴 때까지 노는 시간이었다. 매년 타이완에 갈 때마다 엄마는 프랭크푸루트에 있는 타이완 대표부로 찾아가 화안과 페이페이와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직업을 묻는 란이 있는데 엄마는 언제나 정연한 글씨체로 "놀이"라고 적었었다. 타이완 방문 목적은 "놀이 감"이었다. 만약 신청인의 장기를 묻는 칸이 있었다면 엄마는 아마도 "놀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타이완의 일곱 살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여덟 시간이나 걸렸든가? 엄마는 건망증이라도 걸린 건지 남아있는 동년시절의 기억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릴 때 자신이 얼마나 숙제하기를 싫어했는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숙제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엄마가 뼈뺏해 나갔던 시작이었다. 그녀는 늘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인 채 죽어가는 소리로 "숙제 한 것을 그만 집에 두고 왔습니다."라고 했다. 어린 소녀는 똑 같은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 나중에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왕선생님은 당장 집으로 가 숙제를 가져오라고 했다.

소녀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울었다. 가는 길에 작은 다리를 지났다. 다리 밑에는 작은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연노란 오리 몇 마리가 강물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이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면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았다. 집에 돌아온 소녀는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께 오늘 하루를 지워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칠판지우개로 칠판 위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말끔히 지워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소녀는 소파에 엎드려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어두워 질 때까지 잤다.

화안은 11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걸어서 집으로 왔다. 처음 몇 달 동안, 엄마

는 매일 탐정처럼 뒤를 밟으며 감시했다. 화안이 사거리마다 멈춰서 지나가는 차량을 잘 확인하는지, 제대로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지.....집에 돌아오면 바로 숙제부터 하는지를 감시해왔던 것이다.

"어제 숙제는 쥐 몇 마리 받았어?"

책상 한쪽에는 엄마를 위해 준비한 의자가 놓여있었다.

"한 마리요." 화안이 공책을 펼쳤다. 어제 쓴 글씨는 비뿔비뿔했다. 가장 자리에는 남색으로 된 쥐 모양의 스탬프가 찍혀있었다. 당연히 쥐 한 마리밖에 받을 수 없었다.

"어제 숙제하면서 도날드덕 지우개로 장난한 거지? 숙제할 때엔 숙제에만 집중하면 안 될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하던 일이 다 끝나면 다른 일을 해야 해. 알겠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응? 그 만화책 치우고 좀 있다가 봐. 제발 부탁이야. 엄마 말 들려? 엄마가 셋 셀 때까지 치우지 않으면....."

드디어 화안이 네 줄을 다 채워 엄마한테 넘겨주었다. 빨강에 파랑에 알록달록했다. 엄마는 훑어보고 말했다.

"마지막 한 줄 별로야. N자가 줄밖으로 나갔잖아."

화안의 입이 삐죽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새 종이 한 장 꺼내 한 줄만 더 쓰자. 어때? 그래야 쥐 세 마리 받을 수 있어."

하얗던 화안의 얼굴이 벌개졌다.

엄마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며 말했다.

"자, 엄마가 줄을 쳐줄게. 아주 간단해. 한 줄이면 돼—"

"왜?" 참다못한 화안이 화난 얼굴로 엄마를 쨌려보았다. 그리고 의자에서 뛰어 내리며 버럭 소리 질렀다.

"왜 한줄 더 써야 해요? 엄마는 언제나 나보고 잘 쓰고, 또 예쁘게 쓰라고만 해. 난 어린이니깐 엄마처럼 예쁘게 안 돼—"

눈물이 화안의 두 눈에 가득 찼다. 화안은 고함치듯 소리쳤다.

"엄마는 언제나 나보고 쥐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 받아 오라고 하면서 이렇

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요. 나도 가끔 쥐 한 마리 받고 싶어요—나도 쥐 한 마리 받을 권리,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화안의 감정폭발에 엄마는 놀랐다. 엄마는 한쪽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는 손에 들었던 종이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화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한 마리만 받자. 놀러 가봐!”

화안은 말없이 물건을 챙기고 가방의 지퍼를 잠갔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 앞에서 화안은 멈춰 서더니 아직도 멍해있는 엄마를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가끔은 나도 쥐 세 마리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 던지고 문밖으로 사라졌다.

“그래, 가끔은 말이지.”

형과 남동생

1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다. 화안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목청 높여 한참 부르다가 찾아 나서기로 했다. 놀이방은 불이 켜져 있고 장난감들이 온 바닥에 널려 있었다. 소파에 놓은 쿠션들은 바닥에 떨어져 여기 저기 보루처럼 쌓여져 있었다. 화안이 어디로 갔을까? 조금 전 까지만 해도 분명 "보루"땀을 요리조리 파고 다니며 놀고 있었다.

세 살 되는 남동생은 벌써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

"형아, 밥 먹어!"

잔디 위에는 어느새 얼음이 켜고 날도 벌써 어두워졌다. 화안이 정원에 있을 리는 없었다.

"애가 대체 어디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엄마는 점점 화가 치밀어오기 시작했다.

침실은 어두컴컴해 있었다. 엄마는 전등을 환하게 켰다. 문득 이불속에 쪼크리고 있는 화안을 발견했다. 화안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뒤통수에 자란 머리가 조금만 나와 있었다.

어디 아픈가? 엄마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베끼고 화안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다.

화안의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있었다. 베개도 젖어 있었다.

"왜 그래?" 엄마는 놀라 물었다.

화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대체 왜 그래? 말해봐!"

화안은 끝까지 입을 굳게 닫은 채 고개만 저었다.

엄마는 깨달았다. 지금 화안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었다. 엄마는 화안을 끌어안았다. 애기를 안을 때처럼 꼭 껴안아주었다. 화안은 머리를 엄마 어깨에

기대고 가슴을 엄마 가슴에 꼭 갖다 댔다. 그렇게 한참동안 조용히 안겨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젠 말 해 줄래? 누가 우리 화안을 힘들게 했어?"

화안은 똑바로 앉아 눈을 비비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전에 엄마가 동생을 안아주고 계속 뽀뽀를 해주
고 , 동생 보며 웃는 걸 보니.....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았어
요....."

엄마는 화안을 흘겨보며 웃을 듯 말 듯 말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화안은 축축하게 젖어있는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엄마 목에 파묻고 엄
마를 꼭 껴안았다.

2

아예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화안이 네 살이 되던 해 엄마의 배는 이미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커져있었다.
마치 살짝만 건드려도 툭하고 떨어질 것 같은 수박 같았다. 화안은 클 대로 큰
수박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감상했다. 엄마 아빠가 배속에 들어있는
꼬맹이는 수영도 할 줄 알고 좀 민첩하지는 못해도 꽤 귀엽게 생겼다고 했다. 우
리 둘은 모두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이 특별히 엄마한테 선물로 하사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엄마 배속에 들어있는 꼬맹이가 태어날 때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동생 페이페이는 정말로 형에게 선물을 가지고 나왔다. 선물은 잘 굴러다니는
오프로드 자동차였다. 화안은 꼬맹이의 울음소리가 소스라칠 정도로 크긴 해도
약속을 지켰으니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둘째의 출생으로 빚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다. 첫
째가 베개로 둘째를 질식사 시킨 사건, 어른들의 눈을 피해 둘째의 팔을 꼬집어
도처에 멍들게 한 사건, 깊이 잠든 둘째를 침대에서 밀어뜨린 사건, 연필로 둘째

의 엉덩이를 찌른 사건, 이빨로 둘째의 코를 문 사건.....

엄마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다. 자궁에서 나온 장난감이 첫째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줘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해주기를.....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출산을 축하하러 오는 손님들을 기다렸다.

제일 먼저 초인종을 울린 것은 맞은편에 사는 에리카였다. 엄마는 거실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애기를 안고 젓을 먹이고 있었다. 에리카는 선물을 두 개 들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첫째부터 찾았다.

화안은 책더미 속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선물을 쳐다보았다. 눈에서는 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에리카는 화안의 앞에 쪼그리고 선물을 건넸다.

"오늘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왔어. 하지만 화안이 말이니깐 화안이 제일 중요해. 에리카는 화안에게 먼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야 동생 보러 갈 거야. 화안은 어떻게 생각해?"

화안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선물포장부터 뜯어보았다.

에리카는 그제야 엄마 쪽으로 가보았다.

"에리카는 어쩔 이렇게도 지혜로워?"

엄마는 감격과 동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머————" 에리카는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신생아의 비단 같은 머릿결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무 중요하지! 우리 집은 둘째가 태어날 때 말이지, 둘째가 첫째한테 살해당할 뻔했잖아. 베개로 누르고, 엉덩이로 애기를 깔고, 꼬집어 놓고, 뺨때리고, 연필끝으로..... 온갖 못된 괴롭힘을 다 당했네....."

에리카는 목소리를 낮췄다.

"꼬맹이 정말 예쁘다....."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에리카는 또 다시 화안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그리고 일부러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그래도 화안이 더 이쁜것 같아. 자기 그렇지?"

그녀는 손을 저으며 문밖으로 나갔다.

둘째를 낳고 엄마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 중에서도 둘 이상의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대부분 에리카처럼 신생아를 보러올 때 첫째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고 함께 챙겨 왔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거나 아이 한명만 키워본 사람들은 선물을 하나만 들고 왔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아가 어디 있어?"

그들에게 문을 열어 준 것은 겨우 그들의 무릎 높이보다 조금 더 자란 첫째였다. 첫째는 현관문 옆 어둠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한걸음에 신생아 침대로 다가가 아이를 보며 요란스레 친창의 멘트를 날렸다.

"저 속눈썹 좀 봐, 어쩜 저리도 길고 촘촘할까! 머릿결도 봐, 어머, 어쩜 태어나자마자 솟이 저렇게 많아, 또 어쩜 이리도 가늘고 부드러울 수 있니? 못살아, 저 작은 손 좀 봐봐, 토실토실하고 쫘꼬만한게 귀여워죽겠어....."

손님들은 입을 내밀고 쪽쪽거리며 뽀뽀를 날렸다. 또 가끔은 "아이그—응—그래그래—"하며 한없이 귀여워하는 여러 가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첫째는 멀찌감치 쳐다보고만 있었다.

손님들은 선물을 꺼내며 말했다.

"봐봐, 연한 하늘색에 최상의 소재로 만들었대. 아가는 피부가 여리니 이런 것이 맞을 거야....."

"이리로 와봐, 아가야, 어디 한번 안아보자....."

손님들은 짙은 젖내를 풍기는 보드라운 아기를 안고 흔들거렸다.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하고 깊이 도취되어 있는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었다.

첫째는 아예 저쪽 계단에 앉아 턱을 괴고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끝내 현관문을 나설 때 까지 손님들은 방안에 또 다른 자신들도 알고 있던 꼬맹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저녁시간, 양치할 시간이 되었다. 첫째는 의자를 밟고 세면대 위에 걸려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요리 저리 유심히 비춰본다.

"왜?"

엄마는 영문을 모른 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첫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 나는 속눈썹이 길지 않아?"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긴데!"

"춤춤하지 않아?"

"춤춤한데 왜 그래?"

"엄마,"

화안은 혼란스러운 듯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럼 나는 머릿결이 부드럽지 않아? 내 손은? 엄마, 내 손은 귀엽지 않은 거야?....."

엄마는 손에 든 빗을 내려놓고 첫째를 안아주었다. 마음이 쩡했다.

3

진한 젖내에 살결이 보드랍던 아기는 점점 하얗고 포동포동한 곱슬머리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곱슬머리에 눈은 동그랗고 커다랗다. 눈만 뜨면 방긋 웃었다.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엄마는 마치 거대 자석에 끌린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아기에게 옷을 입혀줄 때, 시리얼을 먹일 때, 목욕시킬 때, 그리고 또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할 때, 엄마는 시대 때도 없이 아기의 머리에, 볼에, 목에, 어깨에, 배에, 엉덩이에, 다리에, 발가락에 까지 무아지경으로 뽀뽀를 해댔다.

이와 반대로 첫째는 성가신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첫째는 양치 시간이 되어도 하려하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에는 살살 달래다가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고통지르며 야단치다가 "하나, 둘, 셋"을 세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도 안 되자 엄마는 빗을 잡았다. 결국 첫째는 매를 맞았다. 첫째는 그때서야 훌훌거리며 작은 의자위에 올라서서 양치하기 시작했다.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첫째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안 먹을 거야."

꼬맹이는 팔짱끼고 "쿨"한척 턱을 높이 치켜들었다. 단호한 표정이었다.

"왜?"

"배가 안고파."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야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어야한다고 또 말해줘야 하나?"

엄마는 점차 이 여섯 살 꼬맹이가 정말 제멋대로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벌써 여섯 살이구나.

두 살배기 곱슬머리는 한쪽에서 즐겁게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탐식하는 돼지 마냥 짹짹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꼬맹이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여기저기 시리얼이 붙어있었다. 엄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안 먹을 거야" 첫째는 또 선언했다.

엄마는 표정을 가다듬고 달래더니 점점 언성이 높아졌다. 이어서 "하나, 둘, 셋" 으름장을 놓았다. 엄마가 나무 주걱을 들었다. 첫째가 맞았다. 그제서야 첫째는 훌쩍 울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그릇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너무 피곤했다. 엄마는 화가 치밀어 씩씩거리며 말했다.

"일어나는 것부터 옷 입기, 양치하기, 세수하기, 밥 먹기.....무엇이든 이 엄마를 진이 빠지도록 30분씩 괴롭혀야 움직이지않아. 엄마 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는 이마에 자란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여? 엄마 이 하얀 머리카락은 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제발 엄마 생각도 좀 해줘. 엄마가 늙어 죽으면 넌 엄마가 없는 애가 되어버려....."

첫째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아, 바보야!"

둘째가 갑자기 얼마 전 배운 한마디를 던졌다. 정말 요긴하게 써먹은 셈이다. 엄마는 웃음이 나왔지만 첫째의 굳은 표정을 보니 애써 참을 수밖에 없었다.

"형아, 맞아야 해."

꼬맹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사랑 받으려고 한마디 더 보탰다. 커다란 눈에는 간사함이 넘쳐나고 있었다. 첫째는 얼굴이 시뻘개 지며 밥그릇을 한쪽으로 밀

어냈다. 그리고는 화들짝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엄마는 어안이 병병해 있다가 이내 쫓아나갔다.

4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해."

화안의 말투는 단호했다. 두 손은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였다.

엄마는 계단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 손으로 턱을 꺾 채 화안을 마주보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동생을 더 예뻐했는지 말해줄래?"

"동생은 양치하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세수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생은 아무렇게 해도 다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돼요!"

"화안아."

엄마는 애써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동생은 이제 두 살밖에 되지 않았잖아. 너도 두 살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봐줬어."

첫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다.

"나도 두 살 때 그렇게 못됐어요?"

"더 못됐지."

엄마는 조금은 수그러진 첫째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다.

"네가 두 살 때는 집에 아이가 하나였잖아. 너는 네가 왕인줄로 알았어.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었지. 하지만 동생은 모든 것을 형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해. 화안이 어릴 때는 엄마아빠, 그리고 온 세상이 모두 화안의 것이었어. 그래서 지금의 동생보다 화안이 더 나빴던 거야!"

"음—" 첫째는 알아들은 듯 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것 같기도 했다.

"대답해봐. 지금 새 옷들은 모두 누구의 것이지?"

어느새 곱슬머리도 와 있었다. 동생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동차놀이를 하며

"두두두두"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

"맞아! 동생이 입은 옷들은 모두 화인이 입던 낡은 옷들이야. 엄마 말 맞지?"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는 이미 다 풀려있었다. 화안은 엄마 무릎에 앉아 잠시나마 엄마를 독차지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좋아.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극장에 가지?"

"화안요."

"좋아. 그리고 저녁에 읽어준 《서유기》, 《수호지》, 허우원용(侯文咏)의 《장난꾸러기》, 샤우에(小野)의 《푸른 나무 게으름뱅이(綠樹懶人)》는 모두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야?"

"나요."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나."

"화안아."

엄마는 아들을 자기 쪽으로 돌려 앉혔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말했다.

"어떤 일은 여섯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은 두 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 말 맞아?"

"네." 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때론 동생이 부러워요. 나도 동생처럼"

"그럼—"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화안도 기저귀를 채워줄까?"

"어우—" 화안은 펄쩍뛰며 손가락으로 코를 잡았다.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싫어, 싫어, 싫어요—"

화안도 동생과 나란히 바닥에 엎드렸다. 손으로 성냥갑만한 경찰차를 밀며 입으로 "삐뽀삐뽀"소리를 냈다. 돼지를 실은 동생의 차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놀아주었다.

두 꼬맹이의 머리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때야 엄마는 알게 되었다. 두 꼬맹이의 머리색이 똑같다는 사실을.....

엄마는 정원에서 작업 중이었다. 튜립과 수선화 씨앗을 심고 있었다. 엄마는 봄이 되면 하이신스의 꽃향이 정원 가득 채워주기를 기대했다. 튜립은 꽃 향은 별로여도 다양한 색상의 꽃봉오리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엄지 공주도 아마 튜립 꽃봉오리에서 나왔다고 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오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부엌을 들여다 보니 아직 다 구워지지 않은 모양이었다.페이페이가 손을 씻고 있는 엄마 곁으로 아장아장 걸어왔다. 그리곤 입버릇처럼 "엄마"하고 불렀다. 엄마는 "응"하고는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고개를 돌려 꼬맹이를 살펴보았다.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둘째가 입은 스웨터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있었다. 크고 작은 구멍들이 질서 없이 나있었다. 분명히 가위로 오려낸 구멍이었다. 그리고 코르텐바지는 너털너털한 천 오리로 베어져 과거 히피들이 입고 다니던 청바지처럼 되어버렸다. 다리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졌다.

너털너털한 옷차림으로 서있는 둘째가 그야말로 거지가 따로 없었다. 꼬맹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굴에는 마침 밥알까지 붙어있었다.

"너너너—"엄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제야 양말에도 큰 구멍이 나있어 발가락이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둘째는 천사마냥 웃고 있었다.

"형아가 그랬어!"

엄마의 목에 힘줄을 살아났다. 엄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화안의 방문을 힘껏 밀어 제쳤다.

그 시각, 화안은 바닥에 앉아 배를 만들고 있었다.

"화안!" 엄마는 무섭게 소리를 질러댔다.

"예?" 화안이 고개를 들었다.

"동생 옷을 누가 저 꼴로 만들었어?"

엄마는 커다란 몸집으로 문을 가로 막았다. 두 손은 허리에 걸쳐있었다.

첫째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이내 멈췄다. 엄마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벌어도 소용없어. 네가 지금 하는 짓은 포진천물(暴殄天物)이야—"

엄마는 화안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속사포를 쏘듯이 말을 이어갔다.

"넌 지금 물건들을 파괴했어. 소말리에서는 지금도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넌 여기서 멀쩡한 옷이나 가위로 망쳐버리다니. 그리고 가위로 사람을 다치게라도 하면 어찌려고? 넌 도대체 무슨 궁리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화안은 죽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새 가위가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는 이 상황에서도 또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래서.....나도 모르겠어요. 어찌다 보니 구멍이 저렇게 많아 졌어요.....동생이 미워요."

화안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뭐라고?"

엄마는 자신이 잘못들은 줄 알았다.

"동생이 밉다고요."

누더기를 걸친 둘째가 엄마 다리 밑으로 기여 나와 화안의 옆에 앉았다.

"손 쥐봐." 엄마가 말했다.

첫째는 재빨리 손을 옷 속으로 감췄다. 그리고 연신 "엄마,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요....."하며 잘못을 빌었다. 그때 둘째가 두 팔을 뻗어 형아의 머리를 감싸고 자기 몸으로 형아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두 꼬맹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엄마는 이미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다.

나는 이렇게 자랐다.

화페이

12시 45분,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빅토리아초등학교는 우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보통 두, 세배의 시간이 걸린다. 12시에 학교가 끝나면 딱 친구 몇 명이 모여 오늘은 어느 길로 갈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렸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로 다녀보았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며 길에서 놀았다. 가장 '비밀'스러운 길은 바로 학교 후문을 돌아 묘지를 가로질러 지나는 인적이 거의 없는 숲길이었다.

물론 매점 "씨에씨에"에 들러 잠깐 시간 보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씨에씨에"는 학교부근의 유일한 매점인데 문구류와 완구도 같이 팔았다. 우리는 매일 들러 새로 나온 레고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얼마동안이나 용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지 계산해보곤 했다. 빅토리아초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매점의 여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언짢은 시선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녀는 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잡아 밖으로 내칠 표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성씨는 독일어로 "열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를 부를 때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 "열정"부인이라고 불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에 들어서면 나는 습관적으로 "엄마, 저 왔어요!" 했다.

그러면 위층에서는 "왔어?"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재채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꽃가루알러지가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가장 먼저 숙제부터 해야 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숙제를 하고 있으면 부엌에서 전해오는 맛있는 냄새가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양파와 돼지간을 볶는 냄새에, 태국식 밥을 짓는 냄새에.....

숙제는 얼마 되지 않았다. 거의 마무리 될 때 즈음이면 맛있는 요리들이 이미 식탁을 장식해 놓았다. 마침 형인 화안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대략 1시 반 이면 우리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언제나 학교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마을역사’를 다시 서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을에는 작은 넷물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넷물에서 송어를 잡았대요. ‘마을역사’ 삽화로 그 넷물을 그려주었어요.

식사시간이 끝나면 정말로 할 일이 없었다. 나는 엄마를 쫓아 서재에 들어갔다. 나는 엄마 발밑 카펫위에 엎드려 만화를 그리고, 엄마는 책상에 마주앉아 글씨를 썼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엄마는 그때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설 새 없이 재채기했다. 그리고 나는 걸핏하면 엄마를 귀찮게 했다. 엄마 무릎위에 앉아 두서없는 말만 해댔다. 엄마가 글쓰기에 집중할까 하면 또 의자에서 내려와 같이 엎드려 자기가 그린 만화를 보라고 졸라댔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글을 쓴 엄마가 참 대단했다.

오후 시간이 지루해질 때 즈음, 형이 자기 방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엄마, 숙제 다 끝났어요. 밖에 나가 축구해도 돼요?”

그러면 엄마는 언제나 믿겨지지 않는 듯 말했다.

“그럴 리가. 숙제하는데 15분도 채 걸리지 않을 수 있어? 타이완 학생들은 매일 3시간씩 숙제를 하는데 말이야. 독일의 교육이 잘못된 거야!”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형의 숙제를 이리 저리 체크했다. 그러면 형은 중얼 중얼 한바탕 해명을 했고 결국 엄마는 승낙했다.

“잠깐, 조건이 있어. 동생도 데리고 가면 안 돼?”

형은 내키지 않아했다. 자기보다 4살 어린 꼬맹이가 귀찮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형은 엄마 앞에서 징징대며 나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나는 한 쪽에 서서 별로 개의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쿨한 척 “난 가고 싶지도 않아요.”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제발 가게해 주라고 기도까지 했다.

결국 형이 양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둘이 함께 축구공을 안고 집을 나섰다.

축구장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과 흰 문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비라도 내리면 바닥이 온통 누런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형의 친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축구를 쳤다. 그렇게 두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머리는

진흙과 땀으로 덩어리지고 신발 안에도 모래가 가득 찼다. 그리고 얼굴이며 손이며 다리며 온통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나면 그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형이 죽어도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할 때도 있었다. 엄마는 형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너무 강요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집 맞은편에 있는 들판에 나가 꽃을 땀다. 아마 "양배추"—나의 금발 여자 친구도 같이 갔었던 것 같다. 꽃이라 해도 모두 들꽃뿐이었다. 우리는 꽃을 따다 엄마가 가져온 바구니에 담고 집에 돌아와 식물표본을 만들었다. 엄마는 꿀을 담았던 유리병의 병마개에 가위로 구멍을 몇 개 뚫었다. 들판의 풀들은 높게 자랐다. 메뚜기들이 엄청 많아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나는 한 마리씩 잡아 유리병에 집어넣었다. 엄마는 메뚜기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던 것이다.

유리병의 메뚜기가 몇 십 마리 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메뚜기를 다시 한 마리 한 마리씩 유리병에서 꺼내 우리 집 정원에 풀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메뚜기를 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세월은 얼마 가지 못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바로 알게 되었다. 메뚜기가 내가 정성스레 심은 토마토를 모두 갇아 먹었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들에서 연놀이를 했었다. 들판은 끝없이 넓었고 풀들은 푸르디푸르렀다. 우리는 풀 위에 누워 하늘을 날고 있는 연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그렇게 풀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다 보면 저녁시간이 된다. 저녁 식사는 보통 형가리 집사가 준비했다. 그녀는 형가리 식으로 쇠고기 요리를 해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엄마는 나와 형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볼 수 있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에 대해 엄마는 유달리 엄격했다.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만 볼 시간이 되면 엄마는 어김없이 나타나 엄마 닭 마냥 우리를 밀고 끌어서 욕실로 데려갔다. 양치하는 광경은 이러했다. 욕실에는 세면대가 두 개 있었다. 엄마는 쪽걸상 하나를 한 쪽 세면대 앞에 가져다 놓았다. 내가 밟고 올라갈 쪽걸상이었다. 나는 키가 작아 쪽걸상을 밟고 올라가야만 거울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욕조 옆에 기댄 채 우리 둘이 양치하고 세수하고 잠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았다. 형이 욕실에서 나가려고 하면 엄마는 "교정틀—"하고 외쳤다. 형은 3년

동안 치아교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엄마가 "교정틀—"하고 외치는 소리도 3년 동안 들었다. 엄마는 언제나 독일어로 "교정 틀—"이라고 말했다.

깨끗이 양치를 끝내면 다음은 "손오공시간"이었다. 나와 형은 침대위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베개에 기대앉았다. 그리고 이불로 무릎을 덮었다. 엄마는 침대 끝 자락에 앉아 《서유기》를 펼쳐들었다. 엄마는 책대로 읽지 않고 자기말로 이야기를 엮어서 말해주었다. 형과 나는 쉴 새 없이 재잘대며 질문했다.

"그럼 손오공 몸에는 털이 몇 개나 돼요?"

"저팔계는 어디로 숨을 쉬어요? 코? 아니면 입?"

엄마는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재미있고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대 이상의 답이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그림도 함께 보여주었다. 이야기 속 모든 인물의 개성과 생김새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저팔계가 "임신"한 대목이 나오자 우리 둘은 배를 안고 깔깔거리며 침대에서 굴러다녔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애원했다.

"한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늦게 잘 거예요. 한번 만 더....."

아무리 때를 써도 잠잘 시간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삼십 분정도 이야기를 해준 후 엄마는 책을 덮고 우리 둘에게 뽀뽀를 하고, 불을 끄고 조심조심 문을 닫고 나갔다.

불이 꺼진 어둠속에서 조용조용 걷는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서재로 갔다. 긴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자고 난 후에야 엄마는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둘은 엄마가 나가기 바쁘게 이불에서 튀어나와 장난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살며시 전등을 켜고 레고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떠들어대거나, 그것도 아니면 옷장 속에 숨어 엄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몇 분 지나지 않아 엄마는 걱정이 되어 다시 우리 방으로 왔다. 엄마는 일부러 화난 표정으로 우리를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고 다시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엄마는 다시 돌아가 이어서 글을 썼다. 엄마가 가고나면 우리는 또 다시 쥐새끼들이 구멍에서 나오듯 뛰어나와 불을 켜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웃어대며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좀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침대 밑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엄마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씩씩거리릴수록 우리는 더욱 신이난다는 사실을.....엄마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다.

이렇게 몇 번 왔다갔다를 반복하다보면 어느덧 10시가 넘었다. 엄마는 화가 나 먼지를 터는 먼지떨이를 꺼내 들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외쳤다.

"손 내놔!"

우리는 방에서 뱅뱅 도망을 치고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잡지 못했다.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때리지 못했고 그때 승리의 희열을 나는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잡지 못해서 때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러다 우리는 지쳐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렴풋 속, 누군가가 들어왔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돌아온 아빠였다. 아빠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침대 옆에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의 귀가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잘 자, 우리 꼬맹이."

—화페이가 열다섯에 홍콩에서 지음.

내려놓다

화 안

동년을 쓴다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니다. 동년은 가까운 것만 같지만 어릴 때의 기억은 늘 희미하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시간의 순서도 없어 뒤섞여 있어 논리 정연하게 서술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지낸 시간은 적었지만 함께 했던 때 순간들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지내왔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였기에 모든 기억이 하나가 되어버려 흐릿해진 것 같다.

엄마와 아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빠는 자식을 풀어주는 부모였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일상들을 잘 알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엄마는 모든 책임을 짊어진 엄격한 교육자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우리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와 엄마의 가장 큰 갈등은 나는 노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엄마는 앞으로 내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인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피아노 치는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나는 8년 동안이나 엄마 앞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척 했다. 사실은 연습하지도 않았다. 이젠 어떻게 처야 하는지 모두 잊었다. 이 싸움에서 결국은 내가 이겼다. 수영도 그러했다. 엄마는 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또 열심히 반항했다. 언제나 제일 느린 걸음으로 체육관으로 갔다. 몇 번은 도착하고 보니 수영수업이 이미 끝나 있었다. 엄마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억지로 차에 실려 수영장 까지 '압송'됐다. 하지만 이런 '툼과 제리의 싸움'은 언제나 쥐인 제리가 이길 확률이 높은 법이다.

나는 내가 장난꾸러기 아이였음을 인정한다.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수영이 서툴러도 엄마한테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 엄마가 억지로라도 시켰어야 했어요"라고 따질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엄마는 이미 말했었다.

"그래 좋아, 엄마가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가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다.

나의 성장에서 엄마와의 "줄당기기"는 늘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아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제나 조용하게 은연중에 계속 지속해

왔다. 엄마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엄마는 나를 "작은 나무처럼 곧게 자란 사람"으로 키워냈다. 내가 만나는 독일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해준다. "안드레아스는 생각과 행동이 어른 같아." 나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심도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이 모든 것을 모두 엄마가 가르쳐 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다. 나의 "초 예리한 관찰력"은 지루한 수업 시간과 같은 적재적소에 쓰여 지지 않았다. 불필요한 곳에 쓰여 졌던 것이다. 수업 시간에 나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관찰했다. 연속 4년 동안이나 생활 기록부에 이런 평가가 적혀있었다. "안드레아스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합니다." 모두 다른 선생님들께서 같은 평가를 하셨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빠에 비해 엄마는 나와 동생에게 있어 그야말로 "가정 내 독재자"였다. 지금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있다. 엄마는 나한테 아주 엄격했다. 늘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등, 매 사에 열중해라는 등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자유와 합리적인 의견들도 존중해 주었다. 엄마의 이런 확연히 다른 태도는 엄마의 성장과정과 관련이 있다. 엄마는 타이완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지식인들이 한창 자유와 이성적 사고를 추앙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남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동년과 말이인 내가 기억하는 동년은 많이 다르다. 동생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수많은 '구두 위협'은 했었지만 정말로 '무력'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동생의 기억일 뿐이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엄마의 빗과 작은 먼지떨이가 손바닥에 닿았을 때 정말로 아팠다. 엉덩이도 맞은 적이 있다. 두 번은 뺨도 맞았다.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것은 역시 따뜻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이다. 주말이면 나와 동생, 엄마, 우리 셋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침대에 둘러앉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곤 했다. 안테르센의 동화와 그리스신화로 부터 시작해 중국의 민간고사에 이르기까지, 목란의 이야기부터 삼국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침대 옆에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엄마와 우리 형제의 이런 "친밀한 관계"는 오늘 날 육아관련 교과서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지성교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간들, 우리에게는 단지 서로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받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싫은 나와 동생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낭독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쁜 일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사라졌던 기억들이 하나 둘 씩 다시 샘솟아나고 있다. 나와 동생, 그리고 엄마, 나는 이 두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보다는 친구 같다. 이 두 ‘친구’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밤낮없이 동생과 물고, 빨고, 뜯고 하면서 자랐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엄마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매일 오후 숙제가 끝나면 나와 동생은 어김없이 엄마의 서재에서 맴돌곤 했다. 우리가 엄마 서재에서 기상천외한 일을 벌일 때마다 엄마는 책을 잠깐 덮고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며 “애들아, 책이나 보면 안 될까?”라고 말했다.

엄마는 변한 것이 없다. ‘책이나 봐’라는 잔소리는 지금도 달고 산다. 물론 나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책 보는 것을 싫어한다. 엄마는 나의 잠재된 천재성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엄마의 이런 소망 때문에 가끔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엄마는 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당신의 아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이를 데리고 음악특기자반 면접을 봐도 됩니다.’ 엄마는 그것을 모든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수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는 통지서대로 나를 데리고 음악교실로 찾아갔다. 피아노 옆에 앉아 있던 선생님은 나보고 가장 간단한 독일동요를 부르라고 했다. 긴장해서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 “이이야야—” 도저히 노래라고 할 수 없었다. 피아노건반 위에 손을 얹었지만 칠 수가 없었다. 음악선생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설명했다. 우리 클래스는 특수“소질”을 갖춘 아이들을 위해 만든 클래스라고 했다. 엄마는 편지에 분명히 모든 학생이 와야 한다고 적혀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고장인 독일은 엄마에게 익숙지 않은 ‘이국문화’이고, 이런 ‘이국문화’에서는 내가 엄마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 살 때, 나는 추상적 사고와 거시적 시야,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엄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독일 생활에서의 자질구레한 일에서는 내가 더욱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이질감” 때문에 나와 엄마는 자주 의견이 달랐고, 심할 때에는 “적응 못하는”엄마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

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엄마의 이런 "이국문화"로 인해, 그리고 이런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나 자랑스럽다. 과거 우리에게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과 함께 보낸 과거의 기억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나간 기억들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엄마는 '애야, 서두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때론 빨리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화안과 동생의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신다면, 엄마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놓아주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 질 것입니다."

— 화안이 열아홉에 지음